

부산 수영구 망미동 주택재개발
예정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

2008. 08.

목 차

I . 고고·역사학 분야 조사	6
1. 조사개요	7
2.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8
1) 자연·지리적 환경	8
2) 고고·역사적 환경	10
3. 조사내용	13
1) 문헌조사	13
2) 주변유적	15
3) 현장조사	20
4.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22
II . 민속학 분야 조사	38
1. 조사지역 개관	39
2. 조사개요	40
3. 망미동(望美洞) 주요 지명과 유래	42
1) 망미동 지명의 유래	42
2) 배산(잘미산)	42
3) 조치막골	44
4) 무덤떠(무덤터, 무덤뜰)	45
5) 모노메고개	45
4. 민속신앙	46
1) 공동체신앙	46
2) 가신신앙과 민간신앙	47
5. 사회조직	50
1) 동계	50
2) 노인회	50
3) 청년회	51
6. 세시풍속	52
7. 민속문학	54
1) 설화	54
8. 조사단의견	66

Ⅲ. 지질학 분야 조사	67
1. 지질개관	68
1.1 광역 지질개관	68
1.2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개관	68
2. 부산지역에서 보고된 주요 자연사 기록	71
3. 부산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73
4. 조사지역의 지질 및 자연사기록 산출특성	76
5. 조사결과 종합 및 결론	81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83

I . 고고·역사학 분야 조사

지 도 목 차

지도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1/25,000)	24
지도2. 조사대상지역 내 촬영위치도(사진번호)	25
지도3. 東萊 古邑城址 推定 復原圖	26

사 진 목 차

사진1.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동쪽에서)	28
사진2. 복원된 고읍성지와 조사대상지역 남쪽 근경	28
사진3. 구릉부	29
사진4. 부산지방 병무청사 신축부지 내에서	29
사진5. 명진 종합카센타 골목	30
사진6. 873-2번지	30
사진7. 884-19번지에서(동→서)	31
사진8. 881-587번지 도로	31
사진9. 906-42번지 앞에서(북동→남서)	32
사진10. 남영빌라 옆에서(남→북)	32
사진11. 945-15번지	33
사진12. 945-83번지	33
사진13. 945-43번지 일대	34
사진14. 944-17번지 앞에서(동→서)	34
사진15. 불광도원 앞 경작지	35
사진16. 463-1번지 일대(북→남)	35
사진17. 881-53번지와 905-12번지 일대	36
사진18. 594-22번지 일대	36
사진19. 복원된 고읍성(1)	37
사진20. 복원된 고읍성(2)	37

Ⅱ. 민속학 분야 조사

사 진 목 차

사진1. 조사지역 전경(한신아파트 옥상에서)	40
사진2. 겸효대 터(망미체육공원 내)	43
사진3. 거칠산국의 유적을 추정되는 배산성지(배산 중턱)	43
사진4. 조치막골 터(현 포스코아파트 옆 개발지구)	44
사진5. 조치막골 터(현 부산지방병무청)	45
사진6. 1980년 망미동 제당과 제당의 산신도	46
사진7. 굿바위 전경	47
사진8. 망미1동 청년회 사무실	51
사진9. 제보자 최동해씨	61
사진10. 제보자 김복임씨, 복순씨(좌측부터)	61
사진11. 제보자 채묘연씨	62
사진12. 제보자 김순남씨	62
사진13. 제보자 김정기씨, 변재순씨, 신귀순씨(좌측부터)	63
사진14. 최동해씨 부부 전통혼례 I (1966)	63
사진15. 최동해씨 부부 전통혼례 II (1966)	64
사진1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무덤떠에 살던 주민	64
사진17. 망미1동 로얄베스토피아 아파트 노인정	65
사진18. 망미1동 중앙노인정	65

Ⅲ. 지질학 분야 조사

그 림 목 차

그림1. 조사지역의 지질도	70
그림2. 조사대상지역의 야외현황사진	76

그림3. 조사대상지역 및 조사지점의 위치도	77
그림4. 조사대상지역의 위성영상	77
그림5. 제 1지점의 야외사진	78
그림6. 제 2지점의 야외사진	79
그림7. 제 3지점의 야외사진	80

I . 고고 · 역사학분야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명 : 부산 수영구 망미동 주택재개발 예정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 조사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은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대상지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62조와 제91조에 의해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구역 내 문화재 분포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구역의 성격과 상태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며 사업 시행 시 유적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사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68,439.7㎡

5) 조사기간 : 2008년 07월 14일 ~ 08월 13일

6) 사업시행자 :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7)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8)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 정의도(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장윤정(한국문화유산연구원 지표조사과장)

조사보조원 : 강아진(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원)

2.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¹⁾

부산광역시 759.86km²의 면적에 남쪽은 바다에 면하고 서쪽은 김해시 장유면과 진해시, 북쪽은 양산시 물금면과 김해시 대동면, 동쪽은 울산광역시 서생면·온양면에 접하며 2001년을 기준으로 한 현재 1군 15구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의 餘脈이 남해에 침강한 말단부에 위치하여 구릉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북서쪽의 금정산(802m), 백양산(642m), 엄광산(504m), 구봉산(408m), 구덕산(565m), 천마산(332m) 등 높이 300~600m의 연봉이 병풍구실을 한다. 북동부 수영강 연안과 낙동강 동안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분포하여 낙동강 하구의 광활한 삼각주에 포함된다. 수영강 연안에는 장산(634m), 황령산(428m), 금련산(427m) 등의 지맥이 뻗어 해안평야의 발달이 미약하고 동래 일대는 분지상의 평지를 이룬다. 시가지는 금정산에서 북병산을 지나 용두산에 이르는 구릉에 의해 동서로 양분된다.

금정산과 상계봉을 비롯한 북동부 산지가 고원견산, 시약산, 승학산 등의 남서부 산지에 비해 높다. 그리고 前者는 삭박작용에 비교적 저항이 약한 화강암류로 되어 있고 후자는 안산암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광역시의 지질은 하부에 송도층이 있고 이를 덮거나 혹은 관입·접촉하는 안산암질화산각력암 안산암질암, 그리고 불국사산성화성암류에 속하는 규장질화산암류와 마지막에 관입하는 심성암류로 구성된다.

부산의 산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척량산맥인 태백산맥의 말단에 해당되며 이 말단부가 신생대 제3기 중신세부터 일어났던 북동-남서방향의 축을 가진 언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일련의 단층운동에 의해 포항부근에서 세 갈래로 분기되면서 남서방향으로 달리다가 부산에서 한 단계 고도를 낮추면서 대한해협에 몰입한다. 따라서 부산의 산지를 이루는 산정들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 배열·분포하고 이는 이들 산지가 단층운동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갈래의 산지는 첫째 양산의 원효산에서 시작하여 금정산(796m)→ 상계봉(638m)→ 백양산(638m)→ 고원견산(503m)→ 구덕산(562m)→ 시약산(590m)→ 승학산(495m)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다대포의 물운대에서 대한해협에 몰입하는 이른바 부산의 척량산맥인 금정산맥이고 둘째는 양산군 일광면의 달음산(586m)에서 시작하여 장산(634m)→ 금련산(415m)→ 황령산(427m)→ 영도의 봉래산(394m)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금련산맥이다. 이들 두 갈래의 산맥은 북동-남서 방향의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각각 지배된 단층산지로, 후자는 전자에 비해 고도가 한단계 낮고 산지의 경사가 보다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는 양산시 원동면의 토곡산(855m)에서 시

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第一卷), 1989 참조.

작하여 김해군의 신어산(630m)→ 계봉(393m)→ 용지봉(750m)→ 불모산(802m)→ 보개산(479m)→ 가덕도의 연대봉(495m)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신어산맥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지역 주변에 위치한 금련산, 황령산을 포함하고 있는 금련산맥의 특징을 약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영강 이동은 장산(叢山, 634m)과 구곡산(436m)이 주봉을 이루는 산악지대로 금련산맥 중에서 고도가 가장 높고 험준하며 사면이 가파르다. 단층선곡인 수영강과 동천을 비롯한 소하천의 개석작용에 의해 예리한 맛을 잃어버린 중순형이고 사면도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체가 곳곳에서 해체되어 배산(255m), 백산(110m)과 같은 독립구릉이 있는가 하며 낮은 산각만이 겨우 유지되면서 부산만에 몰입하는 산등성이의 지맥도 있다.

부산의 하천은 대부분이 단층선에 지배된 適從河川이며 대한해협으로 흘러 들어가는 해양유역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낙동강을 제외하면 모두 유로가 짧고 거의 직선상을 이루고 있다. 북서산지의 서쪽으로 서남방향으로 흐르는 낙동강은 남해로 유입하면서 양안에 사상 및 사하지역과 김해지역의 넓은 평야를 이루고 지류인 죽림강은 김해시 대동면에서 녹산쪽으로 흐르면서 넓은 삼각주평야를 형성한다. 동래 분지를 흐르는 수영강은 장산과 황령산 사이를 흘러 수영만에 유입하기까지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다. 백양산에서 발원한 동천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범내로타리에 이르러서는 수정산에서 발원하는 감내천(甘勿川)과 합류하여 부산만에 유입된다. 상류는 급류성 계류이나 하류는 하상의 경사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며 하구 부근은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한다. 서면 일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하천은 상류와 하구를 제외하면 거의 복개되어 유수를 볼 수 없다.

부산의 해안은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지배된 태백산맥의 지맥인 금정산맥과 금련산맥, 그리고 신어산맥의 말단부가 대한해협으로 몰입하여 형성된 해안으로 해안선의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의 특색을 나타낸다. 특히, 북동-남서 방향의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의 구조곡과 이에 사교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미세한 구조선이 크고 작은 만입 및 하곡사이에도 작은 반도와 곶(串: 頭角地), 도서가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복잡한 침수해안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해안에는 적기·암남·장군·다대반도가 돌출하였고 그 사이로 수영만·부산만·감천만·다대만 등을 이루고 있다. 해안선 가까이 산지가 임박하여 대부분 수심이 깊고 해안침식이 왕성하다. 따라서 태종대의 암석해안에는 해식애·해식대 등의 해안지형이 잘 발달하였고 반도나 곶에는 자갈해안·사빈해안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기온이 14.0℃이며 1월 평균기온은 0.9℃, 8월 평균기온은 25.4℃로 연중 0℃ 이하의 평균일수는 10일 미만이다. 연강수량은 1,466mm이소 4~9월에 약 78%가 집중된다. 바람은 겨울에 북서풍, 여름에 남서풍과 해륙풍이 심하며 연중 바람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2) 고고·역사적 환경²⁾

부산지역은 낙동강과 넓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따뜻한 기후 등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형성된 각종 유적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먼저 부산지역의 강서구 지사동과 해운대 청사포·좌동 신시가지에서는 함북 용기군 굴포리의 석기와 유사한 니암제 박편 및 원판형 석기들이 수습되어 구석기시대부터 이곳 주변에는 인류 활동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

현재까지 알려진 부산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영도구 동삼동, 조도, 서구 암남동, 다대동, 강서구 범방동 등 대부분이 해안과 강변에 위치한 패총이 많다. 부산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6,000년 전에 시작되어 B.C. 1,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소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간에 부산지역에서는 영도 동삼동과 강서 범방동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게 되었고 뒤이어 조도·영선동·다대동 등과 함께 암남동, 금곡동 등에서도 생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주로 석기를 비롯하여 빗살무늬토기 등 생활용구와 함께 조개, 동물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어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B.C. 1,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는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청동기시대인데 부산지역은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청동기시대가 조금 늦게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서동·온천동의 금강공원, 장전동, 금사동, 거제동, 사직동, 수영동, 부곡동, 낙민동, 대신동, 괴정 1동, 괴정 2동, 감천동 등 부산의 대부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면, 영도, 동래, 대신동, 감천동, 괴정동 등지의 무문토기 산포지, 지석묘, 석관묘 유적과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마제석기와 토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래의 수영강 유역, 서면의 범천 유역, 대신동의 보수천 유역은 청동기시대의 농경지와 주거지, 묘지 등 당시의 유적이 어느 정도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⁴⁾ 신석기시대에 비해 유적 수가 훨씬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위치도 바닷가에서 떨어진 내륙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삼한시대는 마한 54국, 변한 12국, 진한 12국의 78국으로 이루어진 연맹국가가 있었다. 영도구 조도패총,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 온천동, 구서동, 노포동, 동래패총 등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4, 지리1에서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국으로 경덕왕(757년)이 개칭한 것인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이 둘

2)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89.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지역 내 좌동·우동 구석기유적』, 2001.

4) 都東烈, 『加羅領域에 대한 考察』,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2.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第四卷), 1991.

부산직할시립박물관, 『伽耶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1991.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매장문화재 분포자료집』, 2001.

로서 원래 동평현은 대증현, 기장현은 갑화양곡현이었으나 모두 신라 경덕왕 때 개명한 것이라고⁵⁾ 하였다.

동래지역은 삼한시대의 유력한 부족국가 중의 하나인 거칠산국(居柒山國)이 있었던 곳으로 신라 및 김해지방의 가야연맹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동래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의 규모와 부장품의 내용에서도 확인가능하다. 한편,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신라 세력에 일찍부터 흡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탈해 이사금대(57~79년)에 거도(居道)의 계략으로 우시산국(于尸山國, 지금의 울산)과 거칠산국(居漆山國, 지금의 동래)을 쳐서 빼앗았다는 기록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주변에는 연산동고분군이 알려져 있는데 배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나온 50m 전후의 능선 정상부를 따라 대형봉분을 가진 고분 10여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대형분들 주변의 구릉 경사면에는 중·소형고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도로가 개설되면서 잘려나간 부분에도 몇 기의 대형고분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산동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이미 극심한 도굴의 피해를 입긴 했으나 부산의 대표적인 고총고분이다. 정식조사는 1987년 고분군의 성격파악을 위해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現 신라대학교)과 부산산업대학교박물관(現 경성대학교)에서 4호분과 8호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⁷⁾ 그리고 2000년 복천박물관이 고분군의 일부분을 조사하였다.⁸⁾ 철제갑옷과 투구들을 비롯하여 고배, 기대, 대부장경호, 원저단경호 등의 토기류, 철도자, 유자이기 등의 철기류, 마구류 및 유리옥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그 밖에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복천동고분군은 대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으로 사적 제274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1969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 및 부산박물관(前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박물관(前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등에 의해 7차에 걸친 정식발굴조사 및 긴급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180여기의 유구가 발견되었으며 목관묘에서 황구식석실묘에 이르기까지 A.D.2세기~6세기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종 토기류, 무기류, 장신구류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총 10,000여 점에 이르고 있다.⁹⁾

5) 『三國史記』 卷 第34, 雜志第3, 地理1,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東平縣 本大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6) 『三國史記』 卷 第44 列傳 第4 居道條 「居道…時 于尸山國 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壞并吞之志 每年一度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7) 신경철, 「釜山 蓮山洞古墳群發掘調査 概報」 年報第10輯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87.

안춘배, 『釜山 蓮山洞 4號墳 發掘調査報告』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1987.

8) 복천박물관, 『釜山蓮山洞遺蹟』, 2003.

9) 동아대학교박물관, 『上老大島 附: 東萊福泉洞古墳·固城東外洞貝塚』, 1984.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東萊福泉洞古墳의 調査內容과 그 性格』, 1991.

부산대학교박물관, 『東萊福泉洞古墳 I』, 1983.

부산대학교박물관, 『東萊福泉洞古墳 II』, 1990.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수습한 고려는 각 지방에 존재하는 호족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행정구역도 새롭게 재편하였다. 『高麗史』 권57, 지리2, 울주조와 양주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의 동래군은 동래현으로 강등되면서 울주군에 영속되고 영현이던 동평현은 양주군(지금의 양산)의 지배를 받게 된다.¹⁰⁾ 동래현은 고려 후기에 다시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나 동평현은 계속 양주군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왜구의 노략질이 상당히 빈번해졌는데 동평현도 우왕 2년(1376)과 조선 태조 5년(1396)에는 병선 120척을 이끈 왜구의 대규모 침략을 받아 동평·동래·양산까지 심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왜구의 침략이 거세어지자 동래현이 동래군으로 승격되고 이제까지 양주에 속했던 동평현이 동래군에 이속되었다. 그러나 태종 9년(1409)에 다시 동평현은 양주(양산)에 영속되었다. 세종 5년(1423)에는 부산포를 개항하여 왜관을 설치하였고 세종 10년(1428)에 동평현이 동래현 소속으로 복귀하였다.¹¹⁾ 그러면서 왜구의 침략 등을 고려하여 군사적 요새지로서 禦侮將軍(정삼품 당하무관)을 동평현에 파견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 중종 5년(1510)에는 삼포왜란으로 왜관을 폐쇄하였다가 명종 2년(1547)에 다시 개관하였고 이 때 동래현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 때 동평현은 군사적 요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되고 행정 단위기관으로 변모한다. 선조 25년(1592)은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수사영을 수영(지금의 수영구 수영동)으로 옮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산첨사 정발은 부산진성을, 동래부사 송상현과 양산군수 조영규는 동래성을, 다대포첨사 윤홍신은 다대포성을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당시 동래성이 함락된 뒤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선조 32년(1599)에 다시 도호부로 승격하였다. 선조 40년(1607)에는 두모포에 왜관을 다시 설치하였고 효종 6년(1655)에는 동래부에 독진을 설치되었다. 숙종 16년(1690)에 부사가 방어사를 겸하였다가 2년 뒤에 방어사가 폐지되었다.

영조 16년(1740) 편찬된 동래부지에 의하여 동래부 관할 행정구역은 읍내면, 동면, 남촌면, 동평면, 사천면, 서면, 북면의 7개면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지역은 남촌면에 속해 있었다.

근대인 고종 13년(1876)에 병자수호조약 체결에 따라 부산포가 개항장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고종 14년(1877) 부산에 租界가 설치되어 일본, 청국, 영국의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고종 20년(1883) 개항에 따른 항만관리, 외교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감리를 두어 동래부사가 이를 겸임하였으며 부산해관(부산세관)을 설치하였다. 고종 27년(1890)에는 동래감리서를 설치하였고 고종 32년(1895)에 지방관제 개정으로 동래부는 경상남도에서 소속되었다.

1903년에는 동래군으로 강등되었다가 1906년에 다시 부로 승격하였고 1914년의 군면통폐합시에 동래부가 동래군으로 동래부 부산면이 부산부로 개편되었다. 또한 1936년 4월 용주면과 남면 일부가 부산부로 편입되면서 신설된 부산진출장소(대연,

10) 『高麗史』 卷57 地理2 蔚州條 「本屆阿火村 … 屬縣二. 東萊縣 本新羅居漆山郡 景德王 改爲東萊郡 顯宗九年 來屬 後置縣令. 嶺陽縣…」 梁州條 「新羅文武王五年…屬縣二. 東平縣… 機張縣…」

1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3 東萊縣條 「世宗朝改稱僉節制史後移鎮于屬縣東平未幾環舊治後改縣令」

용호, 용당, 우암, 감만동 등 관할)로 되었다. 1942년 10월 동래군의 수영과 해운대 일부가 부산부로 편입되어 수영출장소(현 수영구)가 설치되었다.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8월 시제(市制)실시로 부산시에 속하였으며 1953년 9월 대연출장소, 1957년 1월 부산진구 대연출장소와 동래구 수영출장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73년 3월 2개의 출장소를 합쳐 시 직할 대연출장소로 승격되고 1975년 10월 18개동을 관할하는 남구로 되었다. 1988년 5월 전국 자치제 실시로 30개동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1995년 남구의 일부가 수영구(광안, 망미, 민락 등 10개동)으로 분리되었다. 현재 수영구는 광안 1·2·3·4동, 남천 1·2동, 망미 1·2동, 수영동, 민락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조사내용

1) 문헌조사

조사대상지역은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던 것으로 비정되는 동래(東萊) 고읍성(古邑城)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고읍성의 기록이 보이는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東萊縣 古跡條로서 「古邑城이 海雲浦에 있으며 東南은 石築, 西北은 土築인데 둘레가 4,430尺이나 지금은 허물어졌다」¹²⁾고 하였다. 그리고 『輿地圖書(1757년~1765년)』 경상도 동래진 동래도호부 고적조에는 「古邑城 在府東二十里海雲浦東南石築西北土築周四千四百三十尺今頽圯」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고읍성의 초축연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중기에는 허물어져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高麗史 兵誌에 顯宗 12년(1021)에 東萊郡城을 修築하였다는 기사¹³⁾를 통하여 고려시대에는 사용하였던 성(城)임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과 함께 발굴조사로 확인된 고읍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동래 고읍성지 유적은 행정구역상 수영구 망미동 640-1번지, 868-1~4대, 987-64구, 681-3번지 일원에 해당된다. 2002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토성 일부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에 남아있는 동래 고읍성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현 부산지방 병무청부지를 2002년 8월 24일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통해¹⁴⁾, 토성(연장 94m)과 우물지 4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초축시기를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비정하였다.

한편,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구 국군부산병원에 대해 2003년 2월 17일부터 동

12)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古跡條 「古邑城 在海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四千三百三十尺 今頽廢」

13) 『高麗史』 兵誌 卷三十六, 「顯宗 十二年 修東萊郡城」

14) 동의대학교박물관,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년 7월 22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각각 40m, 95m정도의 잔존 토성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신축예정지에 대해 2004년 11월 4일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3일에 모든 유구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토성은 구릉 하단 일부에 걸쳐진 평산성이며 축조기법상으로 기단석축형 관측토성이다. 토성의 평면형태는 북벽, 서벽 일부 구간만 확인되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일대의 지형과 구 지적으로 추정해 볼 때 대체로 방형 내지는 말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생각된다. 토성의 초축시기는 토성 외벽 초축기단 퇴적층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과 토기편만이 확인되고 그 외 건물지 등에서 노출된 토기나 기와, 막새 등도 이와 유사한 시기의 유물로 초축시기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반(75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내 시설에는 통일신라시대의 衙舍로 추정되는 건물지 1호 및 담장지, 배수로, 온돌유구 등은 모두 장축방향이 남-북방향이거나 그에 직교한 동-서향으로 노출되어 동일축을 가지고 있으며 담장지의 서쪽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 반면 고려시대에 조성된 衙舍와 관련된 건물지 2호, 석렬 등은 통일신라시대 유구에 비해 주축방향이 15° 정도 서쪽으로 편향되어 조성되었고 모두 통일신라시대 담장지의 동쪽에서 노출되었다.

동래 고읍성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대접과 접시, 완, 잔 등 일상의 생활용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향로편과 주자 등이 확인되었다. 태토는 잡물이 혼입된 회백색의 점토가 대부분이지만 녹청자계열의 조질청자도 일부 보이고 있다. 해무리굽이 출토되었으며 녹청자계열의 조질청자, 압인양각의 기법이 가미되고 여의두문과 변형된 운학문 등으로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유물로 12세기~14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주변에는 앞에서 서술한 고읍성과 함께 좌수영성지가 알려져 있다. 경상좌수영은 선조 25년(1592)은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것을 수영(지금의 수영구)으로 옮겼다.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다. 둘레 9,190척, 석벽 높이는 4m이다. 경상좌수영은 경상좌도 수군의 본영이다. 본래 부산포에 있었으나 태종 때 울산광역시 개운포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겨졌다. 1636년(인조 13) 사천(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선로가 통하지 않자 다시 감만이포로 옮겼다. 그러나 이곳은 왜관과 가까워 군사 기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652년(효종 3)부터 1895년(고종 32) 구군제가 폐지될 때까지 수영동에 설치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지역이 속한 망미동은 남촌면에 속하였으며 남촌면(南村面)은 다시 상단(上端)과 하단(下端)으로 구분하였다. 상단(上端)에는 송정리(崇亭里), 동부리(東部里), 서부리(西部里), 북문외리(北門外里), 남문외리(南門外里), 축산리(丑山里), 감포리(甘浦里), 칠포리(漆浦里)가 속하고 하단(下端)에는 포이포리(包

15) 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釜山 望美洞 共同住宅敷地 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2007.

伊浦里), 남천리(南川里), 대연리(大淵里), 석포리(石浦里), 분포리(盆浦里), 용당리(龍堂里), 감만리(戡蠻里), 오암리(午岩里)가 해당된다.¹⁶⁾ 이 가운데 동부리·서부리·북문외리·남문외리에는 경상좌수영이 자리 잡고 있어¹⁷⁾ 둘레 9,198척, 높이 13척의 성곽이 있었으며 축산리, 감포리, 칠포리, 포이포리에는 각각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있었다.

경상좌수사는 정3품의 무관으로서 좌수영의 소재지가 동래부의 관할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동래부사(문관 정3품)와 서로 세력을 겨루기도 하였다. 좌수사의 부관으로는 무관 정4품의 우후(虞侯)가 있었으며 그 밖에 대솔군관(帶率軍官) 6명, 화사(畫師) 1명, 사자(寫字) 1명, 영리(營吏) 30명, 진무(鎭撫) 37명, 통인(通引) 25명, 관노비(官奴婢) 10구, 사령(使令) 26명, 군솔(軍率) 23명이 있어 좌수사의 공사 생활에 사역되었다. 좌수영의 사무는 좌수사의 지휘를 받아 동래부의 경우와 같이 중앙 정부의 6조 체제를 모방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이 있어서 각기 사무를 나누어 집행하였다.

좌수영성 안에는 수사가 집무하는 즉, 상영(上營)과 우후가 집무하는 우후영 즉, 중영(中營)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객사인 영파당(寧波堂)과 동헌인 관운당(管雲堂), 우후의 집무처인 세검헌(洗劍軒)을 비롯하여 비장청(裨將廳)인 백화당(百和堂), 원문(轅門)인 수항루(受降樓), 주사대변소(舟師待變所)로서 칙분정(滌氛亭), 주사장대(舟師將臺)로서 연무정(鍊武亭)과 군기고(軍器庫), 화약고, 호고(戶庫), 보군고(補軍庫), 영수고(營需庫), 공고(工庫), 관청고(官廳庫), 지창(紙倉), 수성청(守城廳) 등 많은 관아와 창고가 있었다. 또 성 밖에는 어구정(禦寇亭)과 장대(將臺)가 있었는데 어구정은 군사들에게 사격 훈련을 시키던 곳이고 장대는 매년 10월 1일에 수사가 직접 무사들에게 무예를 시험하던 곳이다.

2) 주변유적¹⁸⁾

(1) 동래 북천동고분군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동 41번지, 47~112번지, 136~155번지, 217번지, 239번지 일대와 칠산동 48~55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사적 제273호이다.

현재 동래 중심가 북쪽에 반달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마안산의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구릉 상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1969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 및 부산박물관(전 부산시립박물관), 북천박물관(전 부산시립박물관 북천분관)

1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제2권)』, 1990.

17) 『東萊府邑誌』 坊里조

18)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문화유적분포지도-1 부산광역시』, 2006.

등의 기관에 의해 7차의 정식발굴조사 및 긴급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18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목관묘에서 횡구식석실묘에 이르기까지 A.D. 2세기~6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종 토기류, 무기류, 마구류, 장신구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총 10,000여점에 이르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1992년부터 정화사업을 통해 고분군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고, 유물전시관 및 야외전시관을 통해 출토유물 및 유구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2) 부산 북천동 내성유적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동 72번지 일원으로 북천동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 구릉의 동남쪽 경사면 아래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 내성초등학교 뒤쪽의 동래교육청 자리가 유적의 중심지이다. 북천동 내성유적은 1989년 부산박물관(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굴하였는데, 조사 당시 동래교육구청사의 신축공사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였다. 조사된 유구는 수혈식주거지 2동, 목관묘 7기, 토광묘 2기, 옹관묘 2기 등 총 13기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를 파괴하고 분묘가 설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는 늪도형 주거형태로 B.C 2세기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적의 퇴적층에서 야요이식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동시기의 한일관계를 살펴볼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묘 11기의 출토유물로 보아 대체로 4세기후반부터 5세기전반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북천동고분군과는 대조적으로 유구의 규모나 부장유물의 양에서 빈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시 피지배계층의 분묘로 추정된다.

(3)동래 읍성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산 47~49번지 일대, 북천동 산1~2번지 일대, 칠산동 산1번지 일대, 362번지, 363번지, 440번지, 안락동 830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부산시기념물 제5호이다.

동래구의 명륜동, 북천동, 명장동, 안락동 일대의 구릉과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 동래부의 읍성지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동국문헌비고』 읍성조 등에 의하면 고려 말인 1387년(우왕13) 박위에 의해 동래현에 축성되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이 성에서 대규모 전투가 전개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었다가 1731년(영조 7) 동래부사 정언섭이 동래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거의 성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읍성을 쌓았는데, 현재 동래읍성지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래읍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인생문 및 암문이 있었고 각 문에는 문루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북문과 인생문이 복원되어 있다. 또한 성지가 지나가면서 조망하기 좋은 구릉의 정상부에 복원된 모습으로 동, 서, 북장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동장대가 있는 동래고등학교 뒤쪽의 망월산에서 대포산을 거쳐, 서장대가 있는 동래향교 뒷산까지의 구릉지 정상부를 중심으로 석

축의 흔적이 잘 남아있으며 서문에서 남문으로 연결되는 평지성의 성벽은 일제강점기 때 시가지 건설계획으로 인해 모두 철거되어 당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부산시에서는 구릉에 현존하는 성지를 중심으로 훼손 방지되었거나 남아 있는 성터가 확인되는 곳을 대대적으로 보수 및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 동래 패총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76번지, 77번지, 100번지, 117번지, 121번지, 122번지, 132~134번지, 214번지, 215번지, 294번지, 306번지, 308번지, 309-1번지, 수안동 38~40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사적 제192호이다.

이 패총은 원래 낙민동, 수안동에 걸친 낮은 구릉지의 서남 경사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던 유적으로 현재는 대부분 파괴, 소멸되고 구릉지의 220평만 보존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의 긴급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동래패총의 분포범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유적 앞쪽에는 현재 온천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영강의 상류에 해당된다. 이곳은 현재 해안선에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당시는 유적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음이 확실하다. 이 패총은 1930년 철도공사 때 4개의 옹관이 발견되면서 알려졌고 1967~1969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굴을 하였으며 1992년에는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정화공사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굴 조사한 바 있다. 동래패총의 존속 시기는 대체로 노포동고분군과 평행하는 A.D. 3~4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물양이 많고 그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동래지방에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 출현하는 전환기에 형성된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산동 고분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 90번지 일대, 92-2번지, 120-1번지, 121-1, 2, 3번지, 122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부산시 기념물 제2호이다.

배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나온 50m 전후의 능선 정상부를 따라 대형 봉분을 가진 고분 10여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대형 봉분들 주변 구릉 경사면에는 중소형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연동시장 방면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잘려나간 부분에도 몇 기의 대형 고분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때 철제 갑옷과 투구 등이 출토되어 고대 한일관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국내외 학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유적이다. 1988년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 8호분을,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박물관에서 4호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당시 유물들을 살펴보면, 토기류로는 고배, 기대, 대부장경호, 원저단경호, 뚜껑 등으로 형태상 모두 신라토기에 속한다. 철기류는 4호분에서 화살통, 금동금구편, 철도자, 쇠화살촉, 유자이기편 등, 8호분의 주곽에서 철갑, 대도편, 쇠화살촉, 쇠도끼 등의 무구류와 금동장행엽, 등자 등의 마구류 및 유리로 만든 경옥 등이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부곽에서는 다수의 판갑편이 출토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갑주류와 1998년 발굴 당시 8호분에서 출토된 찰갑, 판갑 등의 갑주류는 이 지역의 수장층(지배층)이 정치적인 권력과 군

사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발굴 조사되었던 4호분과 8호분을 포함한 10기의 봉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특별히 보호되지 않은 채 체육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다.

(6) 배산성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63-3, 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해발 256m의 서봉과 해발 249m인 동봉의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서봉의 250m에서 동봉의 237m 지점을 지나는 길이 210m의 내성 부분과 서봉의 225m 지점을 지나는 길이 300m의 외성으로 나누어진다. 산의 중북부에 띠를 두르듯 쌓은 산정식산성(山頂式山城)으로 말안장(馬鞍)상의 지형인데, 성의 북쪽 지형은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에 축성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봉의 남쪽 등산로에 노출된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외벽의 석축기단은 가로 40cm~60cm, 세로 20cm~30cm, 두께 20cm~30cm의 활석으로 내탁법(內托法)에 의해 쌓았는데 외벽의 안쪽으로 깔린 돌(敷石)의 범위를 볼 때 성벽의 폭은 약 5m 정도이며 잔존 성벽 중 양호한 부분은 높이 3m에 이른다. 성벽을 따라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특히 북쪽사면 골짜기에 있는 우물지에서는 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이들 토기편은 타날된 대형호편, 과수, 병형토기편, 고배편, 발형기대편 등 5세기~6세기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기와편은 격자문, 승석문, 태선선조문, 선조복합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성내 및 우물주변에서 가야의 고지(故地)에서 보이는 이중 성곽의 평면을 보이고 있어 수습된 유물의 특징과 함께 삼국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지의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배산의 지맥에 연산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지의 정상에는 황령산으로 가려진 서쪽부분을 제외한 수영만, 반송, 동래, 초읍, 서면 일대, 멀리 구포 지역까지 관망할 수 있어 삼국 시대 부산지역의 중심 성곽으로 보인다.

(7) 부산 망미동 배산 유물산포지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산 67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남일고등학교 뒤 구릉 정상에 오르는 길목에서 많은 토기편들이 채집되었고 구릉 정상부의 체육공원에서도 크고 작은 기와 편들이 다량 수습되었다. 배산산성이나 혹은 관련 시설의 유물들이라고 생각되나, 그 범위나 유물에 대해서 언급한 예가 없는 상황이다.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8) 부산 망미동 유적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2220번지 일대로 현재 망미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입지해 있는 얇은 구릉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5년 3월 부산대학교박물관 발굴 조사에서 조선시대 중엽(15~16세기)에 조영된 군집묘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토광묘 47기로, 목관과 묘광사이에 조개가루를 섞은 석회를 채워 만든 회곽묘,

관 주변에 보강토를 채워 만든 목관묘, 형겅 등으로 싸서 바로 묻은 직장토광묘 등이다. 유물은 토광 한쪽 벽을 파내어 만든 감실 안에 자기병, 청동합, 청동수저, 철제가위 등이 출토되었다. 분청사기, 백자를 주종으로 하는 자기류 41점, 합 수저를 중심으로 하는 청동제품 56점, 가위 등 철제품 19점, 옥류 15점 등 총 135점이다. 현재 유적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

(9) 고읍성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640번지, 870번지 일대로 현재 부산시 병무청과 포스코 ‘더샵’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옛 국군통합병원의 위치이다. 2002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하였고 2003~2005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城은 구릉 하단일부에 걸쳐진 평산성이며, 축조 형태는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이다. 토성은 북벽, 서벽 일부 구간만 확인되어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이 일대의 지형과 구 지적도 그리고 조사지역 남쪽을 동서로 지나는 도로를 성내 중심도로로 추정해 볼 때, 대체로 방형 내지는 말각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북벽은 길이 210m 정도이고 유실된 구간은 약 160m 정도로 토성의 북벽 길이는 최소한 370m 정도이다. 토성의 내부에서는 건물지와 우물, 수혈유구, 구상유구, 보도유구 등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개발로 인해 성벽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물 2정과 일부의 토축은 부산시 병무청 뒤쪽에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다.

(10) 좌수영성지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235번지, 236번지 일대로 부산시 기념물 제8호이다. 이 유적은 현재 수영사적공원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남문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보인다. 1990년대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한 결과, 성벽과 성지의 대략적인 형태와 다수의 기와편, 자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좌수영은 영남좌도의 해안방어를 관장하는 수군의 중심으로서 우수영(통영)과 더불어 남면 방어의 중책을 수행하였던 군사 방어적 시설이다. 특히 좌수영성은 동래읍성, 금정산성과 더불어 해안 최일선 보루였다. 이 성의 규모는 남북 279.6m, 동서 534m로 성벽의 총 길이는 1,480m, 내부 면적은 107,789이다. 이 성은 낮은 구릉과 평지를 이용하여 설치한 전형적인 평산성이다. 성곽은 내탁식인 편축석성으로 성문 좌우는 내축식, 성벽 축조는 대, 중, 소의 돌을 적당히 섞어 잔돌을 끼움 쌓기 방법으로 쌓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벽의 총 길이는 620m이며 높이도 150cm 미만이다. 남문 외에는 문도 남아있지 않다.

(11) 황령산봉수대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산 53-1번지 일원으로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의 경계를 이루는 황령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황령산봉수대는 석성산, 간비오산 봉수대와 더

불어 이미 세종 7년(1461년) 이전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부산지방에서는 간비오산 봉수대와 함께 가장 오래 존속한 것이다. 황령산봉수대는 1976년 군부대의 협조로 부산시에서 학술조사를 거쳐 복원하였으나 당시의 조사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전언으로는 봉수대의 하부구조만 잔존하였는데 일직선상의 구들이 횡으로 5줄 있었다고 한다. 현재 5개의 연굴과 4각형 굴뚝, 그 앞에 원형 화덕 5개가 설치된 부뚜막 형식의 봉수대가 복원되어 있다. 현재 복원된 상부구조는 당시의 발굴된 상태를 기본으로 문헌과 유사하게 복원된 것으로 차후 인근 봉수대의 발굴성과를 참고로 하여 정확한 고증, 복원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으로 남쪽의 금련산(403m)과 북쪽의 배산(255m)이 이어지는 계곡 능선의 완만한 구릉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쪽에는 원동천과 온천천이 합류하는 수영천이 동해와 합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에 있는 배산(盃山)은 해발고도 256m의 구릉 정상에서 배산성지(盃山城址)가 확인된 바 있다. 성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성지의 규모와 축조방법 등에서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산의 성(城)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산의 북쪽에는 연산동고분군, 남동쪽에는 배산 유물산포지, 고읍성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의 남쪽으로는 양정에서 수영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수영에서 토곡을 지나 안락동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토곡에서 연산동을 지나 동래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현재 도로가 배산(盃山)을 중앙에 두고 그것을 둘러싸듯이 동서남북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리적 요충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와 함께 남쪽에는 부산지방 병무청, 동쪽과 북쪽에는 배산초등학교, 남일고등학교, 서쪽에는 망미 한신아파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방법은 도보와 육안관찰에 의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지형과 실태 파악 및 유적 잔존유무와 유물 분포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전체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부정형이며 지형은 북쪽과 서쪽이 높고 남쪽과 동쪽이 낮다. 해발고도는 남북으로 약 56m, 동서로 약 30m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쪽은 배산(盃山)의 정상부와 연결되고 있다.

현재 주차장, 단독주택, 빌라 등의 공동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길과 도로 대부분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건물이나 도로의 조성을 살펴보면 동쪽 일부와 남쪽(부산지방 병무청사 신축부지)을 제외하면 서→북동 방향의 등고선 형태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형상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북쪽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막힌 골목이 많이 있어 소통이 원활한 편은 아니다.

조사대상지역의 남쪽은 병무청 신축부지의 일부로 기존에 군인아파트와 테니스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2005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 결과¹⁹⁾ 계획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한 범위에 해당되어 이미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재는 컨테이너 등의 가건물과 높이 약 3m정도의 둔덕을 만들어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경 70cm~80cm 정도의 바위로 석축을 쌓아놓은 상태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쪽 경계인 배산초등학교의 남쪽에 텃밭으로 사용되는 공터가 있었으나 여기에서 토기·기와 등 어떠한 인간 행동의 소산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은 남쪽의 병무청 신축부지 일부를 제외하면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5층 내외의 공동주택(빌라)을 제외하고는 2층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주택의 구조들도 매우 유사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에 틈을 주지 않고 거의 붙여서 조성되어 있다. 도로는 구릉의 형태를 살려 만들어진 반면, 주택들은 ‘L’ 자형으로 굴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된 결과 원지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특히 조사대상지역의 북쪽 경계인 가파른 경사를 가진 배산의 구릉을 절토하고 조성된 주택들과 남일고교, 배산초교의 담장높이가 거의 5m이상을 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토기·기와 등 어떠한 인간 행동의 소산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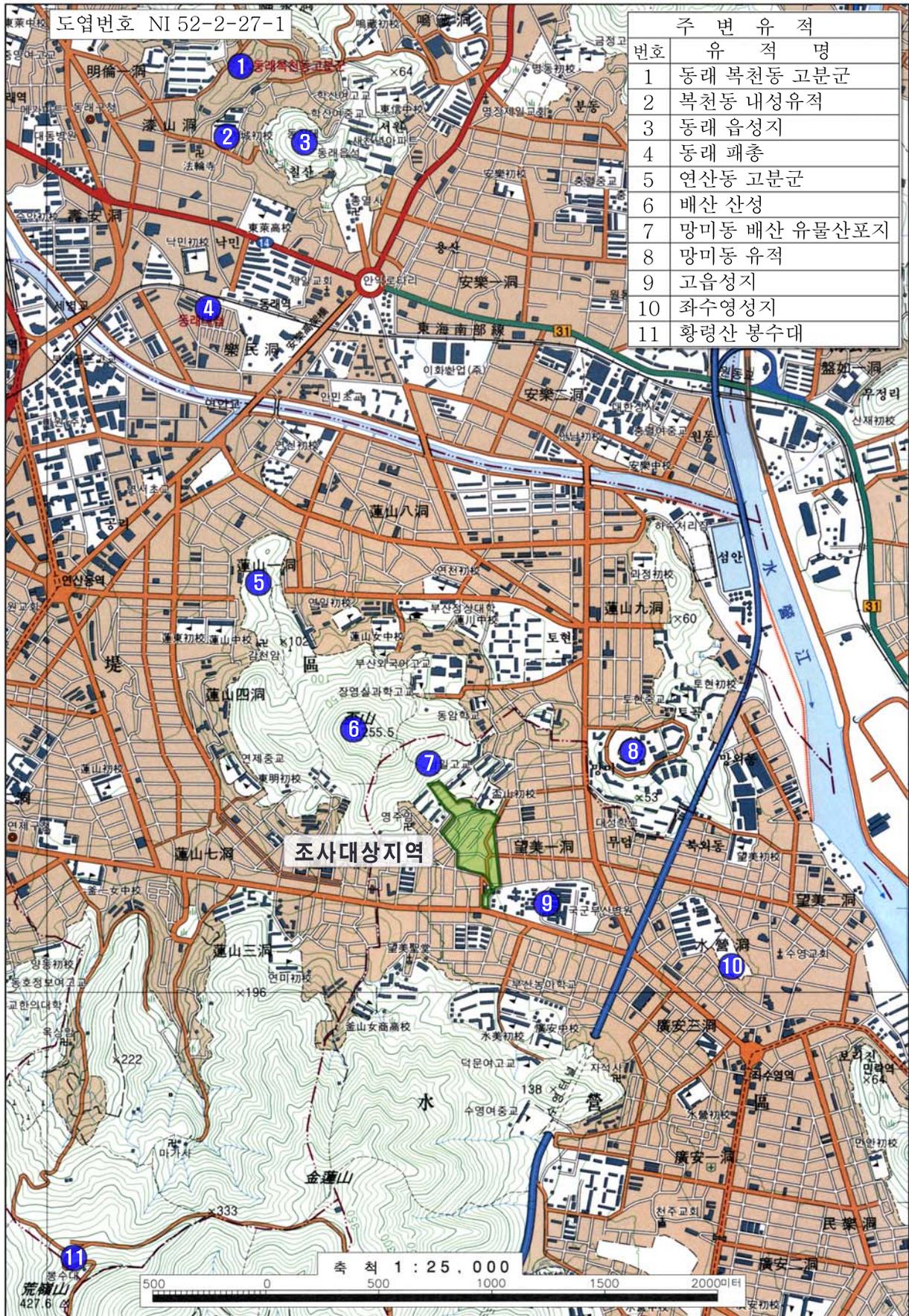
한편, 조사대상지역의 인근 동쪽은 고읍성지로 이미 알려져 있는 곳이다. 고읍성지는 먼저 2002년 8월 24일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부산지방병무청 이전 신축부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²⁰⁾, 체성의 일부와 城內에서 우물 4기가 되었으며 고읍성의 범위를 조사구역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현 망미아파트 부근에서 남쪽으로 꺾어 도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동쪽으로는 구 부산국군병원의 북쪽 담장을 따라 내려가다가 현 도시고속도로로 인근에서 다시 남쪽으로 도는 것으로, 남쪽 성벽은 현 황령산의 북쪽 말미부분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 때 복원한 고읍성의 범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부가 포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배산(盍山)의 산 정상부에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배산성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황령산으로 가려진 서쪽부분을 제외하면 수영만, 반송, 동래, 초읍, 서면 일대, 멀리 구포 지역까지도 관망할 수 있다. 또한 배산의 북쪽에는 삼국시대 고총고분으로 알려진 연산동고분군이 조성되어 있어 이른 시기부터 부산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배산의 남동쪽 구릉 말단부에 해당되며 고읍성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제시한 고읍성지의 범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이 조성될 때 ‘L’ 자형으로 굴착하여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원지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지만 조사대상지역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시행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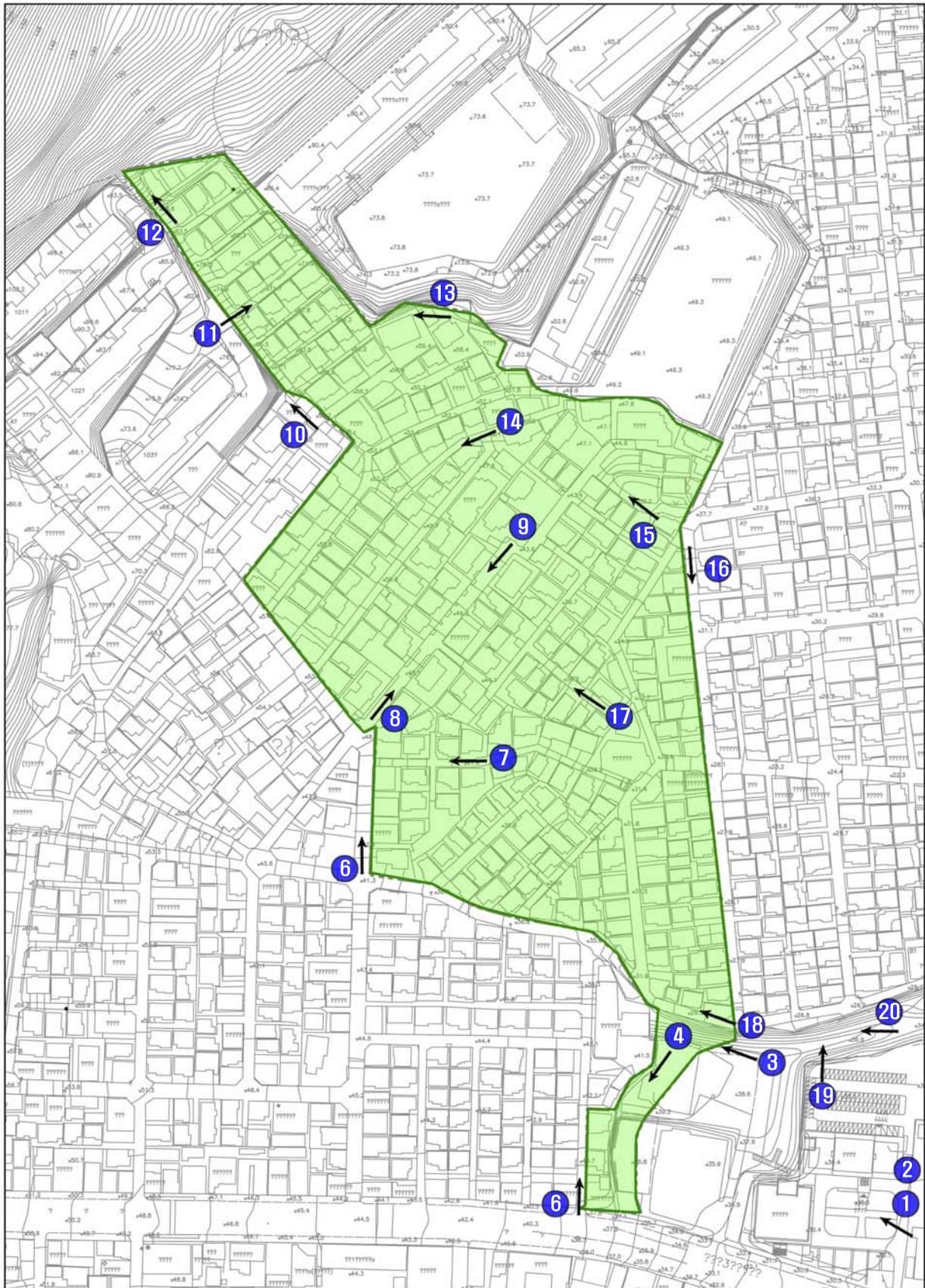
19) 경남문화재연구원, 「부록3. 부산 지방병무청사 신축부지 내 발굴조사 결과약보고」 『東萊 古邑城址-釜山 望美洞 共同住宅敷地 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2007.

20) 동의대학교박물관, 전게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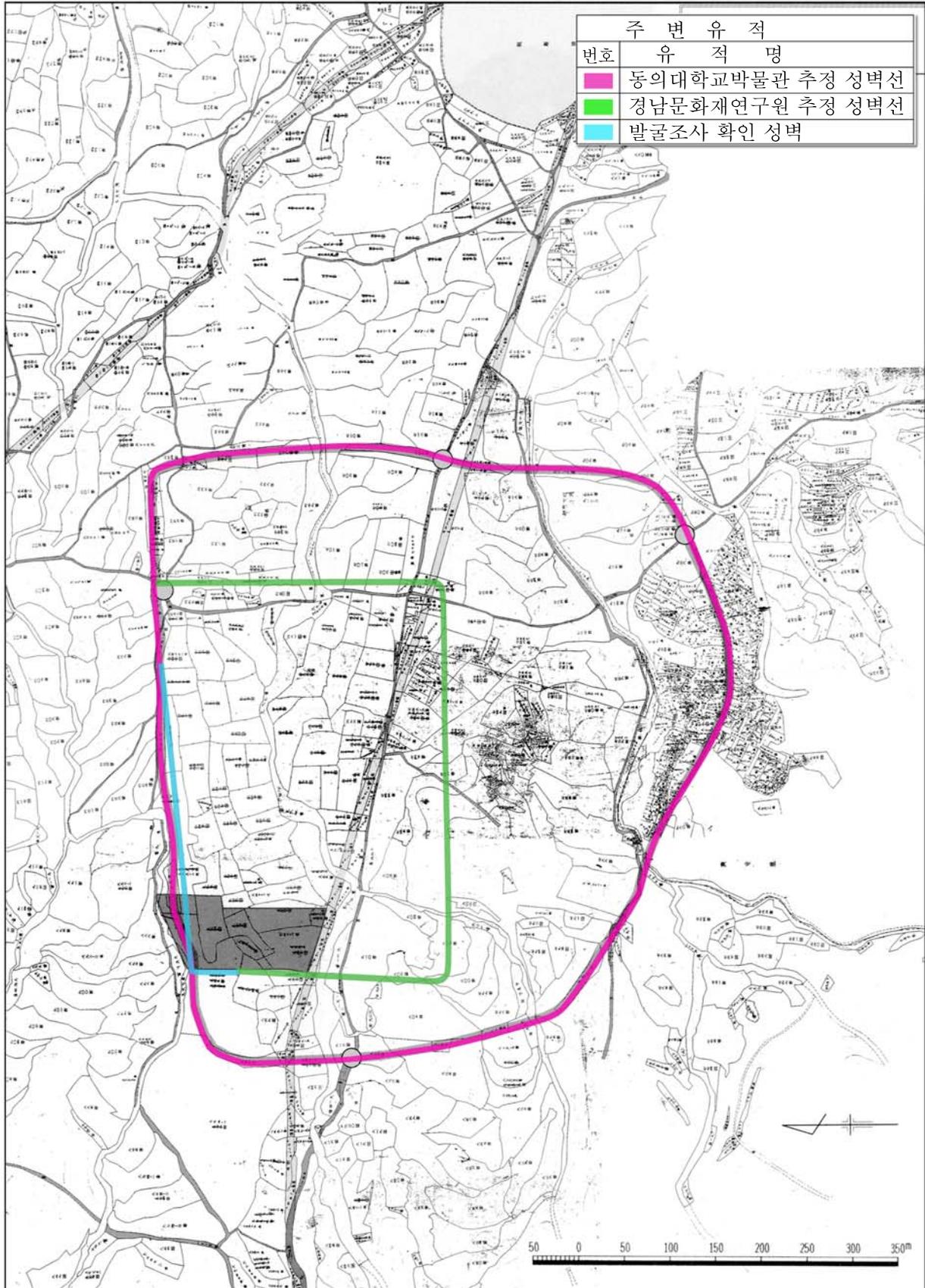
지 도



지도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 (1/25,000)



지도2. 조사대상지역 내 촬영위치도 (1/3,000)



지도3. 東萊 古邑城址 推定 復原圖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東萊 古邑城址』 전제)

사 진



사진1.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동쪽에서)



사진2. 복원된 고읍성지와 조사대상지역 남쪽 근경



사진3. 구릉부



사진4. 부산지방 병무청사 신축부지 내에서



사진5. 명진 종합카센터 골목



사진6. 873-2번지



사진7. 884-19번지에서(동→서)



사진8. 881-587번지 도로



사진9. 906-42번지 앞에서(북동→남서)



사진10. 남영빌라 옆에서(남→북)



사진11. 945-15번지



사진12. 945-83번지



사진13. 945-43번지 일대



사진14. 944-17번지 앞에서(동→서)



사진15. 불광도원 앞 경작지



사진16. 463-1번지 일대(북→남)



사진17. 881-53번지와 905-12번지 일대



사진18. 594-22번지 일대



사진19. 복원된 고읍성(1)



사진20. 복원된 고읍성(2)

Ⅱ. 민속학 분야 조사

1. 조사지역 개관

망미동은 수영구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위치상 북쪽과 서쪽은 연제구 연산동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민락동과 광안동, 동쪽은 수영강의 하류를 경계로 해운대구와 접하고 있다.

망미동은 부족국가 시대에 ‘거칠산국’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부산지방병무청 일대를 중심으로 성곽이 있었다.²¹⁾ 『동래부지(1740)』에 따르면 망미동(望美洞)은 동래부 남촌면의 북문외리·서부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일대는 넓게 보아 수영지역에 포함되나 수영동의 설치에 따라 배산(盃山) 주변을 ‘망미동’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²²⁾ 그리고 『동래부지』 산천조에는 배산이 ‘척산(尺山)’ 또는 ‘배산(盃山, 또는 盃山)’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 산 위에는 신선(神仙) 김겸효(金謙孝)가 살았던 ‘겸효대(謙孝臺)’가 있었다고 전한다. 배산의 연산동 기슭에는 배미산신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어 지금도 주민들은 이 산을 ‘배미산(盃美山)’ 또는 ‘잘미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영동과 망미동 사이에 있는 산을 ‘망산(望山)’이라 하는데, 망미동은 망산의 ‘망(望)’자와 배미산의 ‘미(美)’자가 합쳐서 된 동명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망미동은 동래부의 고읍성(古邑城)이 있던 자리로 좌수영성의 북문 밖에 위치하며, 좌수영의 수사(水使)가 초하루와 보름에 망배(望拜)를 올렸는데 서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의 ‘망미인(望美人)’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1979년 1월 수영동에서 분동되어 망미동이라는 행정동이 생겼으며, 자연마을로는 ‘무덕동마을’, ‘북외동(北外洞)마을’, ‘홍정(虹井)마을’, ‘구락리마을’, ‘조치막골’ 등이 있었다. 망미동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동래부 남촌이었다가 한말에는 동래부 남상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동래군 남면 서부리, 북문외리로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래군 남면(南面) 망미리(望美里)로 바뀌었고, 1942년에 부산부로 재편입 되었다. 1957년에 부산시 남구 소속으로 되었다가 1995년에 수영구 관할로 바뀌었다. 현재 법정동인 망미동은 1982년 9월 신흥주택지의 조성으로 망미 1, 2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재(6월) 망미 1동의 면적은 1.82㎢로 40개 통, 202개 반으로 이루어지며, 총 10,795세대 인구수 30,744명(남 15,078명, 여 15,696명)이 거주하고 있다.²³⁾

망미 1동 연혁

- 조선시대 : 동래부 남촌면 승정리
- 1896년 : 부산부 편입
- 1914년 4월 1일 :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남면 망미리(望美里)
- 1942년 10월 1일 : 부산부 수영동출장소 수영동 편입

21) 부산시청 홈페이지 참고(<http://www.busan.go.kr>).

22) 『부산지명총람』 6권-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2000, 54쪽.

23) 망미 1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2008년 6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http://www.mangmi1.go.kr>).

- 1957년 1월 1일 : 동래구 수영동 관할
- 1975년 10월 1일 : 남구 수영동 관할
- 1979년 1월 1일 : 수영동에서 망미동(望美洞)으로 분동
- 1982년 9월 1일 : 신흥주택지 조성으로 망미동에서 망미 1, 2동으로 분동
- 1995년 3월 1일 : 행정구역개편으로 수영구 망미 1, 2동



사진1. 조사지역 전경(한신아파트 옥상에서)

2. 조사개요

조사지역인 망미 1동 906번지 일원은 북쪽으로는 배산을 접하고 남쪽으로는 연산로와 과정로가 교차하는 교통중심로의 인구주거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1972년 토지구획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 신흥주택지가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조사지역 대부분이 공원묘지 및 산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남일 고교와 배산 초교 부지, 그리고 조사지역 서쪽 대부분은 공원묘지였으며, 북쪽과 동쪽은 산지이거나 산지를 개간한 농토였기 때문에 인구거주 지역은 부산지방병무청 부근의 ‘조치막골’이라 불리던 지역이 전부였다. 이러한 탓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

는 주민 대다수는 망미동에 거주한 기간이 30년 안팎이다. 그나마 주민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만으로는
 망미동의 민속문화를 가늠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조
 사지역 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소수의 제보자와 향토연구가의 조언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망미동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망미 1동
 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 이전의 민속문화와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망
 미 1동의 민속문화를 함께 조사하였다. 총 조사정리기간은 10일이며, 문헌조사는 7
 월 15일~17일, 현장조사는 18일~20일,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7월 27일~8월
 3일까지 진행하였다.

◆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성 명	성 별	연 령	제 보 장 소	제보자 사진번호
최동해	남	69	최동해 씨의 자택	9
김복임	여	80	로얄베스토피아 경로당	10
김복순	여	78	로얄베스토피아 경로당	10
채묘연	여	82	망미동 동광아파트	11
김순남	여	79	망미 중앙 노인정	12
김정기	여	89	망미한신아파트 경로당	13
변재순	여	88	망미한신아파트 경로당	13
신귀순	여	90	망미한신아파트 경로당	13

3. 망미동(望美洞) 주요 지명과 유래

1) 망미동 지명의 유래

‘망미동(望美洞)’에 대한 동명의 유래는 고려시대 충신 정서(鄭敍)가 고향인 동래에서(현재 망미2동 고려제강 뒤편 수영강) 귀향살이를 하면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임금님을 향하여 망배를 드렸다는 고사에 따라 망미동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유래는 망미동 인근에 배산과 망산의 지명에 관한 것이다. 연산동에 있는 배산 기슭에는 서낭당이 있어 예로부터 이곳 주민들이 그 신주를 영험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배산의 신주를 아름다운 산신으로 여겼기에 아름다울 ‘미(美)’자를 넣어 ‘배미산’이라 불렀고, 잘생긴 산신이 산다는 뜻의 ‘잘미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현재의 수영동과 망미동 사이에 위치한 산을 ‘망산’이라 하는데, 이 망산의 ‘망’자와 배미산의 ‘미’자가 합쳐져서 ‘망미동’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저 위에 저짜 산을 망산이라 안하요. 거게 ‘망’자하고 배미산 ‘미’자하고 한 글자씩 따서 망미동이라 카기도 하고, 고려시대 누구 충신이 임금님한테 절을 맨날 했는데.. 그래 그걸 보고 망배라 하나.. 어쨌든 그래가 망미동이라 부른다 하대요.²⁴⁾

2) 배산(잘미산)

배산은 망미 1동에 있어서 가장 유서가 깊은 산이다. 마을 주민들은 술잔을 거꾸로 얹어 놓은 형상이라 하여 배산(栢山)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배산을 ‘잘미산 · 잘매산 · 배미산’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여기를 배산이라카지요? 요는 우리 클 때는 잘매산이라고 했어요. 공원묘지 너머 저 우에까지 있는 논들이 잘매산 논이라 켜지요.²⁵⁾

배산에는 고려시대 선인 김겸효가 기거했다는 겸효대가 있었다고 하며, 산 중턱에는 거칠산국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배산성지가 있다. 망미동 일대는 옛 거칠산국의 중심지였다.

24) 최동해(남, 69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자택.

25) 최동해(남, 69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자택.



사진2. 겸효대 터(망미체육공원 내)



사진3. 거칠산국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배산성지(배산 중턱)

3) 조치막골

조치막골은 자연마을로서 부산지방병무청이 위치한 망미 1동 815번지 일대를 말한다. 예전에는 음식을 조리하던 장소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조니골(造泥谷)’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물기 있는 식품으로 음식물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²⁶⁾ 그러나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현재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조니골의 유래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조치막은 동네 이름입니다. 조치막골이 어디냐카모 여 앞에 포스코 아파트 있지예 그게 가구가 몇가구 없었어예. 거기 조치막골이고. 옛날 국군병원(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올라오모 거기 포스코(아파트) 거기 조그마한 부락이 있었는데 거기 조치막골입니다.²⁷⁾



사진4. 조치막골 터(현 포스코 아파트 옆 개발지구)

26)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년, 130쪽.

27) 최동해(남, 69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자택.



사진5. 조치막골 터(현 부산지방병무청)

4) 무덤떠(무덤터, 무덤뜰)

무덤떠는 현재 망미 1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 일대에 위치한 자연마을이었다. ‘무덤떠’는 신흥주택지가 조성된 1982년도 이전에는 이 일대가 마을 공동묘지였다. 그리하여 무덤이 있는 터라는 뜻과 ‘무덤뜰(뜰)’이라는 뜻을 내포하여 무덤떠라 불렀다고 한다.

5) 모노메고개

모노메고개의 유래는 ‘못 넘을 고개’에서 비롯된다. 이 고개는 배산 뒷편의 연산동으로 넘어가는 산길이었다. 1940년경 당시 모노메고개는 산세는 그리 험하지 않았지만, 도적들이 많아 주민들은 웬만해선 이 고개를 넘어 가는 일이 드물었다고 한다.

모노메고개 거기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라데. 못 넘을 고개라 해가지고 말이 붙여진 게 모노메고개라고 했다더라꼬.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어 갈라 카모 힘들고.. 그 때만 해도 나쁜 사람들이 많았는 모양이라더라꼬요. 그래 못 넘을 고개라 해가지고 모노메고개라고 하도라고.²⁸⁾

28) 최동해(남, 69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자택.

4. 민속신앙

1) 공동체신앙

(1) 당산제²⁹⁾

현재 망미동의 당산제는 소멸하였으나 1980년까지는 전승되었다고 한다. 망미동의 당산 제당은 마을의 서쪽 금련산의 산록 밑에 있었으며, 1922년 3월 18일 입주, 상량하였다. 부산시청 향토역사관 자료에 따르면 당산의 건물은 2칸으로 동향으로 지어졌다. 왼쪽 건물은 제당이며 오른쪽 건물은 제물을 진설하는 제물당이 되었다. 제당의 높이는 73cm이고 제단 위에 조덕주 씨가 1955년 5월 22일에 그린 당산할배도가 걸려 있었다. 당산나무는 제당의 뒤편에는 200여 년의 수령을 지닌 소나무로, 흉고둘레가 434cm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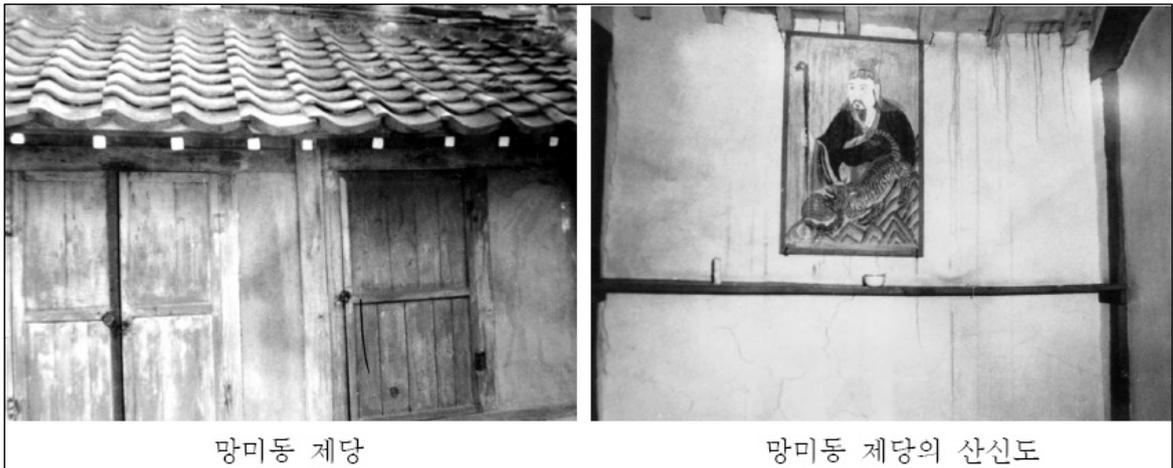


사진6. 1980년 망미동 제당과 제당의 산신도

제관은 정월 초에 노인들이 모여 호선(互選)으로 선출하였는데 제관은 생기복덕하고 칼을 걷는 이를 선출했다고 한다. 제관의 금기는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의는 1년에 한 번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자정에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제물은 가정의 기제사와 비슷하게 준비하나 돼지머리, 닭, 산적, 육회는 반드시 오른다. 제물 준비에 쓰이는 물은 제관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샘물을 쓰며, 제의 당일 아침에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 못하게 한다. 샘물을 걷기 전에는 간단한 우물제를 먼저 지낸 후에 물을 길어 온다. 제의의 과정은 산신제 → 목신제 → 우물제(용왕제) → 거릿대골목할매제의 순으로 지냈다. 음복은 제관과 제관의 가족만 했는데, 이는 제의에 쓰인 제물은 금기가 따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부정을 타게 되면 동네에 그 화를 입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

29)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 2005, 633~644쪽.

기 위험이라고 한다. 제의마련은 동네 깻돈의 금리(金利)로 충당하며 제관에게는 별도의 보수가 없었다. 망미동의 당산은 1980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당집이 허물어져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2) 굿바위

굿바위는 남일고등학교 뒤편인 망미 1동 산67-1번지 배산체육시설 옆에 있다. 1980년도에 당산이 허물어진 이후에도 굿바위에서 2년 간 당산제를 치렀다고 한다. 이후 제관선정의 문제와 주거환경 변화로 더 이상 당산제를 지내지 않게 되자 자연히 소멸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무당들이 기도를 하거나 치성을 드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7. 굿바위 전경

2) 가신신앙과 민간신앙

(1) 귀신쫓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신수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면 정월 열엿셋날 저녁에 삶은 팔과 소금과 술을 준비하여 대문과 마당에 이를 뿌리며, “귀신이 많이 먹고 물러가라.”, “잡귀 잡신은 이 음식 먹고 썩 물러가라.”고 원다. 정월 열엿셋날은 귀신이 잘 붙는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홍역귀신 물리치기

홍역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홍역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팔과 소금을 뿌렸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그 해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팔과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3) 동정 태우기

한 해 액운이 좋지 않거나 신수가 나쁘다고 점쳐지면 해당자의 저고리 동정을 떼어서 달집에 걸어 태운다. 이는 동정에 자기의 나쁜 액이 묻어서 사라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혹은 동정을 떼어서 손 없는 방향에 가서 이를 태우고 그 재를 강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다.

(4) 명태 액땀

그 해의 액운을 점쳐 보아서 신수가 나쁘게 나타나면, 미리 크고 좋은 명태 한 마리를 준비하여 보름날 아침에 한지에다 자기의 성명과 생년월일시를 쓰고 명태를 싸서 짚으로 묶고 이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이나 십자로에 버린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나쁜 액운이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다. 보름날 뿐만 아니라 정초에 날을 받아 이렇게 하면 액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5) 나이떡 해 먹기

이월 초하룻날 그 해 신수가 좋지 않다고 여기면, 그 사람들을 위해 손톱만한 떡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나이 수대로 먹는다. 나이 수대로 먹으면 그 사람에게 끼인 액운이 나이떡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멸된다고 여겼다.

(6) 가시 막기 널뛰기

설이나 보름에 여자들은 널을 뛰었는데, 이렇게 하면 발바닥이 단단해져서 밧에 나가 일을 해도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지 않는다고 여겼다. 널을 뛰는 것을 하나의 민간비방으로 여겼다.

(7) 두더지 퇴치

정월 보름날에는 밧에 생기는 두더지를 퇴치하기 위해 모지랑 빗자루로 두더지 쫓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이 빗자루를 두더지의 구멍에 거꾸로 꽂아 둔다.

(8) 제석 귀신 쫓기

선달 그믐날 밤에 그 집의 주부가 고춧가루, 소금, 팔을 섞어 집안의 담장 밑에 뿌리고, 대문간에도 뿌린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한다. 그냥 뿌리기만 하기도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한다.

(9) 객귀 물리기

집안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객귀가 들어서 그렇다고 여겨 바가지에 찬물을 담고 고춧가루, 밥, 나물, 된장 등을 풀어서 담고, 칼을 병자의 옆에 두거나 물린 뒤 바가지의 음식물을 대문을 향하여 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친다. 칼도 대문 쪽으로 세 번 던졌다가 +자를 긋고 그곳에 칼을 꽂고 바가지를 엮어둔다. 그렇게 하면 객귀가 물러나는 걸로 여겼다.

5. 사회조직

1) 동계

망미 1동의 자연마을인 무덤떠 마을과 조치막골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동계가 있었다. 최동해 씨의 제보에 의해 1945년도 이전부터 동계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계가 생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망미 1동의 동계는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복합적인 계 조직이다. 마을에서 상을 당한 경우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노동력을 지원 해준다. 계원들 중 남성은 직접 상여를 메거나 상가집에서 힘든 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유가족들을 도와 일손의 보탬이 되어주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한 최동해 씨의 경우 12세 때 조실부모(早失父母)하였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계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 상여를 멜 수가 없어 깃대를 잡는 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일을 함으로서 계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동계는 상포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마을공동의 농기구를 마련하기도 하며, 자금이 넉넉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씩 여행을 가기도 했다.

(전 략)

조사자 : 동계의 혜택은 부친과 모친 두 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제보자 : 아니 그러니까네 받는데 아니고 그때만 해도 어려서 부모 뭐 꼭 계모 임이 아니라도 이웃에서 봉사활동을 다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상부상조라꼬. 하여튼 집을 하나지어도 지붕이거 할때는 부락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전부 공사 다 해 줬다 아입니까. 초상이 나모 다 도와주는기라예. 돈이고 뭐고 간에 다 도와주는 거지.³⁰⁾

망미 1동 주민이면 모두 동계에 들 수 있었으며, 큰 행사가 있으면 한 가구당 한 명은 의무적으로 나와 일을 해야 했다. 연간 회비를 내나, 내기 힘들 경우에는 곡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처해 지불할 수 있었다. 동계는 두레의 역할을 겸하였기 때문에 생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주민들은 망미 1동을 떠나 외부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동계를 탈퇴하지 않았다.

1972년에는 새부산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주택지와 아파트단지로 바뀌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반면에 농업을 주 생업으로 삼았던 본 주민들은 대부분이 보상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동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결국 기존의 동계가 가지고 있던 역할과 기능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2) 노인회

망미 1동의 노인회는 1975년도에 창설되었다. 1972년도에 새부산구획정리사업

30) 최동해(남, 69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자택.

이 시작되자 망미 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마련을 위해 일반 주택을 임대하여 노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망미중앙노인정’을 설립, 유지해 오고 있다. 노인회의 회원 수는 현재 약 40명 정도이다. 이중 25명 정도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있다. 운영비가 넉넉할 경우 년 1회 관광을 가는 등 회원들이 모여 다과를 즐기거나 친목을 위해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동절기에는 노인정을 더욱 안락한 장소를 꾸미기도 한다.

망미 1동 노인회는 할머니들로만 구성되며, 따로 할아버지들은 노인회를 두고 있지 않다. 노인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에 이루어지며, 이날 임원을 선출하고, 연말결산을 하게 된다.

3) 청년회

망미 1동의 청년회는 마을자치방범대의 성격을 띠는 단체이다. 구성원은 망미동 내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남성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윤번제로 마을일대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의 대소사 및 보수사업이 있을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신아파트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사진8. 망미 1동 청년회 사무실

6. 세시풍속

정월 초하루에는 망미동의 정초차례를 각 가정마다 다양하게 치러진다. 대부분 선달 그믐날 자정에 기제사를 지내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 떡국제를 지냈다. 정월 보름에는 팥, 쌀, 수수(수수) 보리, 찹쌀 등의 잡곡을 넣은 오크밥을 지어먹는다. 열 나흘날 저녁과 보름날 저녁에는 ‘보름밥을 얻어 먹는다’하여 동네 아이들이 집집마다 잡곡밥을 얻으러 다녔다. 열 나흘날 저녁부터는 마을 청년들이 집집마다 마당이나 집 앞에 북조리를 던져두었다가 보름날 아침부터 북소리 값을 받으러 다녔는데 그 값은 일정치가 않아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셈을 치렀다. 보름날 저녁에는 당산이 있는 곳에 마을 청년들이 그네를 매어 주면 마을 처녀들이 그네를 뛰었다.

이월 초하루는 영동할매(영등할매)가 내려오는 날로서 여성 중 집안의 최고 어른인 시어머니가 주관하여 영등을 모신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오색기를 달아 놓은 후 20일 영동할매가 올라가는 날까지 새벽까지 치성을 드리고 영동할매를 영송한다.

우물가에 독아지(장독)에 스무날 내내 모셨다. 초이틀부터 20일까지 집안에 제일 어른 여자가 모셔. 시어머니 살아계시면 시어머이가 지내고 돌아가셨으면 그 밑에 최고 나이 많은 며느리가 지내고 그랬어.³¹⁾

영동할매가 내려오는 초하룻날은 날씨점을 보는데 이날 비가 내리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진다고 한다.

비오는 날을 물영동이라 카고, 바람불면 바람영동 내린다 하거든. 근데 바람이 불면 (영동)할매가 딸을 데려오고 비가 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온대. 거기 바람이 불면 치마가 나풀거려서 이뿌니까 딸을 데려오는 거고 비오면 치마가 젖고 안 지저분해지나. 며느리 옛 맥일라고 그런 날은 며느리 데리고 온다 카데 ...³²⁾

삼월 삼짇날에는 화전놀이를 가는 대신 한 집에 모여 파전을 붙여먹고 놀았다. 망미동에서는 꽃잎을 먹는 것을 꺼리며 화전이 파전으로 잘못 인식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계원들끼리 모여 관광을 가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한다.

31) 김복임(여, 80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로얄베스토피아 경로당

32) 김복임(여, 80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로얄베스토피아 경로당

사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이라 절에 가서 등을 달고 공양밥을 먹고 불공을 드린다.

오월 단오에는 아녀자들이 전날 밤 이슬을 맞춰 넣어놓은 창포, 약쑥 등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머리가 잘 내린다고 한다. 아침에는 궁궁이를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하며, 마을 청년들이 걸어 준 그네를 뛰기도 했다.

유월 삼복은 여름철의 가장 더운 기간으로 시절식으로 개장국이나 보신탕, 혹은 쌍화탕 등을 먹어 기력을 보충해 긴 여름을 보냈다. 특히 유월은 액달이라 하여 문병을 가면 자신에게 병마가 옮는다고 여겨 환자가 있는 집에는 가지 않았다.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쉽게 부패하고 전염이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세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경험으로 체득한 세시로 좀 더 몸가짐을 조심하기 위한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인 것으로 보인다.

칠월 칠석은 망미 1동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로 여기며 그 날은 꼭 물(비)이 내린다고 기억한다. 이 날 물을 맞으면 좋다고 하여 친구들과 계곡을 찾아 목욕을 하기도 했다.

팔월 추석은 설과 더불어 연중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이다. 송편, 절편, 인절미 등의 떡이나 시절식을 해먹으며 성묘를 가서 차례를 지낸다.

구월 중구에는 객지에서 객사한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며 **시월**에는 시사, 묘사 등 집안의 제사를 모신다. **십일월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데 보통 애기동지가 들면 팔죽을 하지 않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달 그믐날에는 새해를 맞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이 날 잠을 자면 눈썹에 선 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설을 맞이하기 위하여 선달 중순부터는 설빔을 준비하고 이불빨래를 하는 등 아녀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윤달은 손 없는 달, 공달이라고 하여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 꺼려했던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여겨 집을 짓거나 혹은 수리, 담벼락을 고치는 등 조심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달이다. 귀신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묘를 손보거나 이장을 할 수 있으며, 수의를 장만하기도 한다.

7. 민속문학

조사기간 중에는 설화 및 민요, 내방가사 등 민속문학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헌자료조사를 통해 조사지역내에서 채집된 설화내용을 본문에 수록하였다. 내용은 배도식 문화재전문위원³³⁾의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구연자 및 채집 장소는 망미 1동 조사구역내로 한정하여 발췌, 수록하였다.

1) 설화

(1) 지렁이 국을 먹은 노모³⁴⁾

지렁이 먹은 이야기 하나 할까? 내가 그 이야기를 알지.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하께. 내가 해야지. 옛날에 말이지 어느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에는 가난한 것도 살기 어려운데, 나이 많은 노모까지 모시고 살았지. 그 노모는 눈먼 봉사라도 앞도 보지 못해. 그래노이께네 살기가 더 어려웠지. 왜냐하면 논밭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서 겨우 끼니를 잇고, 그렇잖으면 굶기도 하고 그랬어.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나갔는데, 좀 깊은 산에 들어갔어. 그러니 나무를 해오는데,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지. 그러다가 다른 곳에 가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기라. 길을 잃고 집에 못 오니께네 그렇지.

아내가 나이 많은 시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그러니께 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쌀도 없고 무슨 반찬거리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난감할 수밖에 없지러. 그래서 이웃에 나가 밥을 동냥해서 시어머니만 먹이고 자기는 굶다시피 하고 이래 지내는데, 나무하러 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하니 더욱 곤란하지 않아. 거기다가 장미는 지고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어쩔 수 없어 마을 앞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수채에 지렁이가 버글버글 하거든.

‘굶는 것 보다 저거라도 삶아서 어머니를 드리자.’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당장 손을 넣어 지렁이를 한 움큼 잡아 쥐고 집으로 가서 그 놈을 잘 씻어 국을 끓였다. 그리고 나서 저녁 끼니를 굶은 시어머니한테 드렸더니 맛있게 자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고 아가. 이게 무슨 국고? 우째 이리 맛이 있느냐.”했다.

그래서 며느리는 매일 그 국을 끓여 드렸다. 그러니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국에서 건더기 하나씩을 건져 자리 밑에 넣어 두었는데 기라.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무꾼이 나무를 팔아 쌀을 몇 되 사고 찬거리도 준비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러.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

33) 배도식, 부산시 문화재전문위원, 수영민속지 편집주간

34) 최동해(남, 69세) 2008년 7월 19일, 망미 1동 자택.

다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 우째 그 동안 편히 잘 지냈습니까?”하니,

“니 없는 새에 며느리가 맨날 나에게 좋은 고깃국을 끓여 주어서 잘 묵었다. 내가 니 생각이 나서 자리 밑에 그 고기를 넣어 두었다. 이거를 봐라.” 하면서 그것을 들추어 보여 주었다. 그것은 말라비틀어진 지렁이고기가 아닌가. 아들이,

“어머니, 이것은 지렁이가 아닌교?” 하니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뭘라꼬? 지렁이라고?” 하면서 놀라 눈을 뜨니, 고만 눈이 열려 그것이 보였는 기라. 그러이 지렁이 때문에 눈 먼 봉사가 눈을 떴지러.

그래서 효자며느리 때문에 지렁이 국을 먹고 몸보신을 하고, 눈까지 떴은 게 열매나 좋노. 그래서 그 집은 이제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는데 기라. 그라고 자식도 나무를 많이 해서 돈도 벌고 했으니께. 잘 살았지러.

(2) 아이와 동자삼³⁵⁾

옛날에 말이지 오래된 이야긴데, 어느 산골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라이끼네 나이 많은 노모를 모시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게 나이 많은 할매가 시름시름 앓더니 영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말이지. 없는 살림살이지만 의원을 부르고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기라. 그래서 이 부부는 하루 하루를 근심 속에서 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하였다 말이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노승 한 사람이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기라. 그러나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구환 하느라고 돈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무엇 줄 것이라고는 없었지러. 그 스님이 이 집의 딱한 사정을 보고 혼자 말로,

“꼭 듣는 약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스님, 그 약이 무엇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라고 했다.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것은 사람의 고기입니다.”했다.

사람 고기라 카이 이거 정말 사람의 고기를 구하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닌가. 남의 살을 베어 올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의 묘를 팔 수도 없고, 참으로 딱한 일이란 말이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우리 아이를 삶아 드리입시더, 어머니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시지만,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 않겠능지요?”하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이 드디어 결심을 했는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오늘도 골목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천진난만하게 놀기에 열중해지러. 그 사이에 부부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였지 인제. 한참 있으니

35)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년, 518~519쪽.

까 아이가 돌아왔다 말이지.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인자 깨끗하게 몸을 씻겼는기라.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아이를 인자 솥에다 넣어 버렸다 말이지. 한참을 고아가지고 나서 저녁때가 돼서야 국물을 퍼 담아 어머니에게 인자 줌 갖다 드렸다 말이지. 그 국물을 먹어본 노모가,

“야야, 이게 무슨 고기고? 이렇게 시원하고 맛이 있을 수가 없구나.”했다.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의 어머니가 다시 고기를 드리려고 가마솥의 뚜껑을 열었다 말이지. 그러니까 솥 안에는 커다란 동자삼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이게 아닌데, 분명히 우리 아이를 넣었는데…” 아내는 혼자 중얼 거렸는기라. 그리고 남편을 불렀지러.

“여보, 어제 분명히 우리 아이를 넣었는데, 어쩐 동자삼이 들어 있어요.”했다. 남편이 봐도 그것은 분명 아이가 아니라 동자삼인기라.

한참 있으려니까 아이가 돌아왔다. 부부는 참으로 어리둥절하여 아이를 한참 동안 보다가,

“니 어데 갔다가 인제오노?”하고 물었다. 아이의 대답이 말이지.

“어제 산에 놀러갔다가 길을 잃고 늦게서야 겨우 길을 찾아 내려오다가 인근의 어느 집에 하룻밤을 자고 오는 길ियो.”라고 대답했다. 이는 모두 산신령이 이들 부부의 효심에 감동하여 아이를 수막고, 인제 대신 산삼을 내려 보냈는기라. 그 산삼을 동자로 변신시켜 그 부부의 집에 나타나게 했던 것이지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이런 때에 하는 말이 아니겠는강.

노모는 산삼물을 먹고 며칠 후에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집안에는 웃음기가 돌았지러. 그라고 그 집 부부가 하는 일도 차츰 잘되어 갔단 말이지.³⁶⁾

(3) 도깨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³⁷⁾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긴데, 어느 마을에 방씨 성을 가진 영감이 살고 있었다. 이 영감은 마음이 대범하여 겁이 없었다. 어느 날 키가 크고 얼굴이 검으며 싱겁게 생긴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로 돈 백 냥을 빌려 달라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빌려 줄 수가 없어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술 생각이 나서 술 받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방 영감이 생각하기고 ‘이 사람은 도깨비가 틀림없다. 도깨비가 아니고서야 싱겁게 남의 집에 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이렇게 생각한 방씨 영감이 도깨비에게 잘 보이면 덕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라 이놈의 도깨비를 이용해 보자

36) 제보자 : 강입덕(남, 88세), 제보장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망미경로당, 제보일자 : 2005년 8월 8일, 채록 : 배도식

37)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년, 520쪽.

는 심사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 그러면서 .

“반드시 갚아라.”고 했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나자, 밤마다 그 키가 큰 도깨비가 나타나서 매일 백 냥씩을 마루에 갖다 두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 영감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백 냥씩을 모았으니 얼마가지 앉아서 부자가 되었다. 도깨비는 잊음이 심하여 돈을 갚은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꾸만 갖다 놓은 것이다.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밤에 이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찌하여 부자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방씨 영감은 허허 웃으면서 도깨비한테 돈을 빌려주고 매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짓 없이 말해주었다. 마침 그 때 그 도깨비가 돈을 가져오다가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 영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어느 날 방 영감이 밭에 나가 김을 매고 자갈을 골라내고 있었다. 숨어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도깨비가 ‘옳지, 저 영감이 자갈을 골라낸 것을 도로 넣어 주어야지.’하고, 밤에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주위의 돌들을 모두 옮겨 밭에다 넣었다. 다음날 방 영감이 와서 보고 도깨비들이 장난을 친 줄을 알고 혼자서 말했다.

“이놈들이 넣으려면 소똥이나 개똥을 넣을 것이지, 돌들을 넣어서 비가와도 우리 밭은 떠내려가지 않겠구나. 그 것 참 잘 되었다.”했다. 이 말을 숨어서 들은 도깨비들이 정말인줄 알고, 그날 밤에 와서는 돌들을 모두 치우고 영감의 말대로 소똥과 개똥을 산더미처럼 갖다 놓았다.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행 영감의 밭은 소출이 많이 났다. 그래서 또 수입을 올렸다. 돈을 많이 모아 부자되고, 농사 잘 되어 부자가 되었으니 도깨비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다.³⁸⁾

(4) 도깨비한테 홀린 사람³⁹⁾

어느 마을에 술 좋아하는 영감이 살았는데, 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술김에 그 사람이 친군 줄 알고 산골짜기 공동묘지로 끌려갔다. 그 영감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갓을 벗고 두루마기와 바지저고리를 벗고 누워 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공동묘지였다. 사람들은 그 영감이 도깨비한테 홀려서 거기까지 갔다고 했다. 도깨비한테 홀리면 3년을 더 못사는 말이 전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영감도 오래 살지 못하고 3년 만에 죽고 말았다 한다.

어느 영감이 장에 갔다가 술이 취해 돌아오다가 산모퉁이에서 어떤 키 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따라오면서 자꾸만 씨름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 둘이서 붙어서 오래도록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하다가하다가 끝이 없어 마침내 있는 힘을 다 하여 길가의 흙 속으로 처박아 넣고 왔는데, 이튿날 그 장소에 가 보

38) 제보자 : 박봉주(남, 74세), 제보장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망미경로당, 제보일자 : 2005년 8월 8일, 채록 : 배도식

39)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년, 523쪽~524쪽.

니 빗자루 몽텅이가 하나 넘어져 있었다 한다.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은 빗자루나 방앗고는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비 오는 날에는 공동묘지에 도깨비불이 출렁대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불이 모여 있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불이 자꾸만 흩어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비 오는 날 밤에 나무에서 도깨비불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죽으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풍장의 습속이 있어서 시신에서 떨어지는 액체가 도깨비불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라 했다. 액체에는 인 성분이 있어서 푸른 불빛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도깨비불이라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⁴⁰⁾

(5) 개미를 구해주고 생명을 얻은 아이⁴¹⁾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먹고 사는 것은 별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되는데, 아이가 없어서 늘 허전했다. 그래서 부부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3년째 치성을 드렸더니 아내한테 태기가 있었다. 그 후 1년이 지나 부부는 꿈에도 그리던 옥동자를 얻게 되었다. 이는 틀림없이 부처님과 삼신의 영감함에서 일이므로 부부는 또 다시 부처님과 삼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이는 그런대로 잘 자라 10살이 될 무렵 어쩐지 힘이 없고 밥도 잘 먹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먹는 음식이 살로 가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못했다. 아이는 항상 힘이 없으니 동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놀지도 못했다. 그래서 부모는 아들 걱정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절의 중이 이 마을에 시주를 왔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동냥을 얻는데 마침 아이의 집에도 왔다. 그리고 병든 아이를 보더니 혼자 중얼대는 것이었다. 부모가 이 모습을 보고 중에게 매달려 무슨 병고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중이 하는 말이 아이는 명이 그리 길지 못하여 빨리 죽을 팔자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는 너무나 놀라서 아이를 살릴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중은 자기로서는 별 방도가 없으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절에서 수양을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애지중지하고 기른 아들을 절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으나 사정이 그러하매 어찌지 못하고 중을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 낳은 아이이니 부처님한테로 보내서 부처님의 자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마음의 위로를 하며 보냈던 것이다.

절에 들어온 아이는 대사님의 심부름을 하며 다른 동자승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불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래 병약한 몸으로 절로 왔으므로 모든 일에 동작이 느리고 행동이 굼뻐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가 절에 있는 모든 동자승들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오라고 시켰다. 물론 이

40) 제보자 : 이호주(여, 79세), 제보장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수미경로회, 제보일자 : 2005년 8월 17일, 채록 : 배도식

41)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년, 524쪽~525쪽.

아이도 같이 떠나게 된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자 다른 동자승들은 마을을 돌아보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절로 돌아왔는데, 이 느린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대사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야 아이가 돌아왔다. 대사가 아이를 불러 왜 늦었는가를 물었다. 아이가 대답하기를

“동네를 둘러보고 산으로 돌아오는데, 작은 도랑이 있어 거기를 지나는데 개미들이 수천마리가 모여 그 작은 도랑물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승이 싸리나무 가지를 꺾어 다리를 놓아 주었더니 그 많은 개미들이 나무를 타고 잘도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한다. 그랬더니 대사가,

“니가 그 수많은 개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므로 이제 그 개미들의 생명의 기운이 너한테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한다.

그리하여 아이는 그 후로 대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차츰 건강해져서 다른 동자승과 함께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후에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뵈었더니 부모님들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니 말이다. 부부는 대사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했다. 개미를 구해 준 대가로 수 천 마리 개미의 생명 기운을 얻어 아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한다.⁴²⁾

(6) 복 받은 이야기⁴³⁾

[1]

옛날에 돈을 많이 모은 욕심쟁이가 엽전을 집에 두면 도둑맞을까 싫어서 이를 자루에 넣어 대밭에다 파묻어 두었다. 이 사실을 집안 식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이 집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엽전이 오래되면 썩어서 푸른빛을 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도깨비가 되기도 한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가끔 이 돈을 파묻은 데를 살펴보았더니 그 묻은 구멍으로 도깨비들이 나와서 욕심쟁이의 집 마당에 와서 온갖 춤을 추고 장난을 치다가 새벽녘이 되면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시아버지인 욕심쟁이한테 했더니 뭔가 집히는 것이 있었다.

옛날에 돈을 많이 모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악착같이 돈만 모았던 것을 그것을 타하려고 도깨비들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 욕심쟁이는 도깨비가 겁이 나서 그 돈을 파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나오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며느리와 욕심쟁이는 복을 받고 살았다 한다.

42) 제보자 : 권 귀(여, 90세), 제보장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현대한누리경로당, 제보일자 : 2005년 8월 29일.

43)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년, 526쪽~527쪽.

[2]

옛날 어느 때에 관상쟁이가 친구집에 가서 며칠간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관상을 보니 친구는 통 복이 없는데, 그의 마누라를 보니 복이 있게 보였다. 그리고 그때가 여름철이라 마당에 개가 누워 있는데, 개를 보니 복이 좀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복날도 되고 몸보신도 해야 하겠으므로 개를 잡아먹자고 했다. 그래도 친구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집안에 짐승은 10년 이상을 키우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구렁이가 된다.’며 꼬셨다. 늙은 개는 잡아먹고 새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개를 잡아 솥에 삶기 시작했다. 개를 삶으면 다 익으면 개의 대가리가 떠오른다고 한다. 그러니 관상쟁이가 친구 보고 그 솥에 개 대가리가 떠오르는가 보라고 했다. 친구가 자기 마누라 보고 물으니 개 대가리가 떠올라서 벌써 건져 먹었다 하는 것이었다. 복이 있는 개가 복날 죽었으니 그것도 복이고, 그 개 대가리를 마누라가 먹었으니 마누라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⁴⁴⁾

44) 제보자 : 김일순(여, 79세), 제보장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수미경로회, 제보일자 : 2005년 8월 17일, 채록 : 배도식

기타 사진



사진9. 제보자 최동해씨



사진10. 제보자 김복임씨, 복순씨(좌측부터)



사진11. 제보자 채묘연씨



사진12. 제보자 김순남씨



사진13. 제보자 김정기씨, 변재순씨, 신귀순씨(좌측부터)



사진14. 최동해 씨 부부의 전통혼례 I (1966년)



사진15. 최동해 씨 부부의 전통혼례Ⅱ(1966년)



사진4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무덤떠에 살던 주민(1972년)



사진44. 망미 1동 로알베스토피아 아파트 노인정



사진45. 망미 1동 중앙노인정

Ⅲ. 지질학 분야 조사

1. 지질개관

1. 1 광역 지질개관

조사지역은 경상남북도에 발달되어 있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누층군에 속한다. 경상누층군의 대략적인 층후는 8,000 내지 10,000 m에 해당된다. 경상누층군의 구성암석은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암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이회암과 석회암이 협재되고 상부에는 화산암류가 발달되어 있다(엄상호 외, 1983). 이 지층은 Koto (1903)에 의해 경상층으로 명명된 이래 Tateiwa (1929), Chang (1975) 등에 의하여 지층구분이 이루어졌다. Chang (1975)은 경상분지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암석층서구분을 시도하였다. Chang(1975)은 화산활동 및 심성활동과 관련하여 경상분지의 발달과정을 선화산활동 퇴적기, 화산활동 동시퇴적기, 화산활동 절정기 및 화강암 관입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층단위들을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 및 불국사 관입암류로 명명하였다.

경상누층군의 최하부층군인 신동층군은 두께가 2,000 내지 3,000m 로서 사암, 셰일, 역암,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석탄층이 하부에 협재되어 있다. 신동층군은 붉은색층의 협재 유무를 바탕으로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으로 나누어진다.

하양층군은 셰일, 이암, 사암, 이회암 및 소량의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헐적으로 화산암류를 협재한다. 대체적인 층후는 1,000 내지 5,000 m 로서 지역에 따라 변화하며, 신동층군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지층의 발달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층구분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경상분지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하부로부터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으로 나누어진다.

경상누층군의 최상부층군인 유천층군은 경상분지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이루어진 지층으로서, 두께는 2,000에서 3,000 m에 달한다. 구성암석은 안산암, 유문암질석영안산암, 유문암 및 석영안산암, 응회암 등의 화산암류와 화산 쇄설물을 주로 하는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천층군은 화산암류의 빈번한 협재와 이에 따른 복잡한 층서로 인하여 통일된 지층구분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편, 경상누층군의 대체적인 지질시대는 산출화석(연체동물, 화분과 운조류 등의 식물화석)과 분출 및 관입암의 절대연령측정치 및 지자기층서대비를 바탕으로 중생대 백악기초에서 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개관

부산지역은 경상누층군이 분포하는 밀양지괴에 속하며 경상누층군 내 유천층군에

해당된다. 경상누층군의 최상부에 놓인 유천층군은 백악기말 많은 화산활동이 있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부산-가덕 지역에서 유천층군은 하부로부터 다대포층,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안산암류, 암회색의 응회질퇴적암, 유문석영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유문석영안산암, 유문암질암으로 구분된다(장태우 외, 1983). 장태우 등(1983)에 따르면 최하부를 이루는 다대포층은 구성암질을 바탕으로 충무지역에서 뚜렷한 부정합의 발달 없이 진동층을 덮고 있는 고성층에 대비되고, 김인수(1988)는 고지자기 특성을 바탕으로 다대포층을 하양층군에 대비시켰다. 한편 김진섭과 윤성효(1993)는 상위에 놓여 있는 암회색의 응회질퇴적암층을 주변 화산암체와의 관입접촉을 근거로 하위의 다대포층에 포함시켜 송도층으로 명명한 바가 있다.

부산 일대에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인 다대포층에서는 공룡화석편(신종주, 1997)과 규화목편(이유대, 1975)등의 화석이 보고된 바 있고, 지질시대 환경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자연사 기록으로 토양기원 켈크리트 복합층(백인성 외, 1997)과 최근에는 공룡알화석이 발견되었다. 한편 부산의 황령산 지역 유천층군 퇴적층에서는 증발잔류광물기원의 건열구조, 혼적화석 등과 같은 자연사기록 등이 보고되었다(백인성 외, 1996).

조사대상지역은 1:50,000 동래도폭의 남부에 속하는 곳으로,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백악기 유천층군 안산암질암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그림 1). 동래-월내지역은 경상누층군 퇴적층과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화산암류와 이후 이를 관입한 불국사화강암류, 마산암류 및 맥암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퇴적암으로는 유천층군에 해당되는 이천리층이 분포하고 있다(표 1). 동래-월내 지질도폭 설명서(손치무 외, 1978)에 따르면, 이천리층은 퇴적암 내에서 화석이 아직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질시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구성 암석의 여러 가지 특징들로 미루어 보아 경상계의 신라통에 대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천리층은 부산광역시 일광면의 거의 전역과 기장면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대체로 흑색 내지는 암회색의 세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암회색의 세립사암이 극히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광면 일대에 산출되는 이천리층은 인접한 안산암에 의해 대규모로 관입당해 접촉부는 열변성으로 인하여 혼펠스화 되어있다. 안산암질암류는 1:50,000 동래도폭에서 가장 넓은 분포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석이다(손치무 외, 1978). 이러한 안산암질암은 외관상 암녹색을 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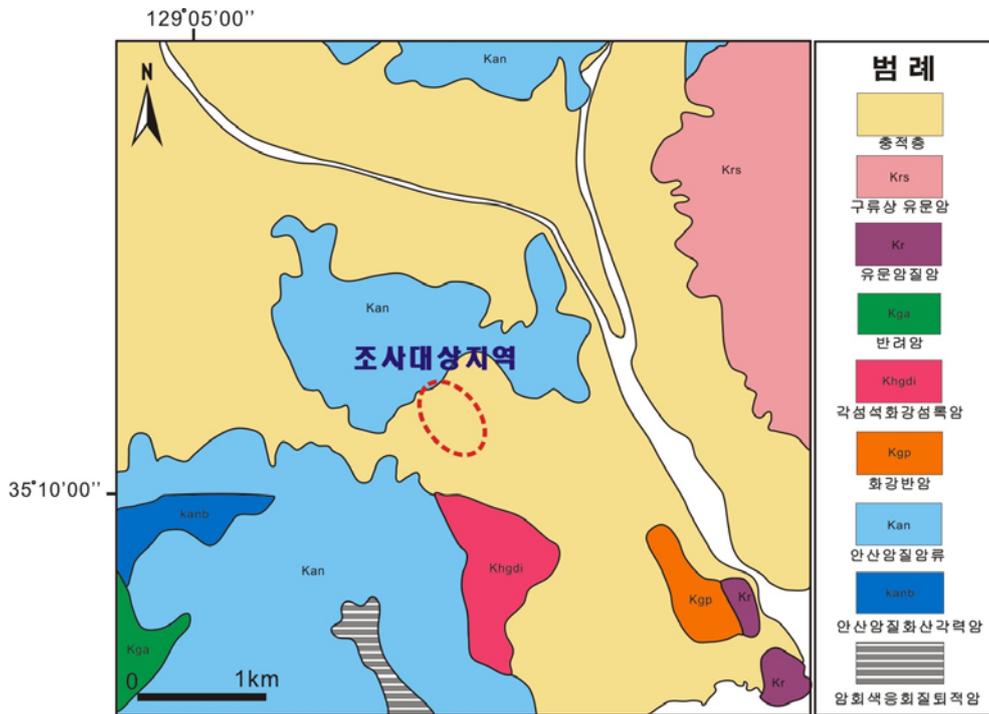


그림1. 조사지역의 지질도(손치무 외, 1978; 장태우 외, 1983)

<표1> 조사지역의 지질계통표(손치무 외, 1978).

제4기		충적층
	----- 부 정 합 -----	
백악기	맥암류	산성암맥
		----- 관 입 -----
	마산암류	규장암
		미문상화강암
		아다멜라이트
		토나라이트
		----- 관 입 -----
	불국사화강암류	흑운모화강암
		각섬석화강암
		화강섬록암
		섬록반암
		----- 관 입 -----
	유천층군	유문반암
		유문암질응회암류
래피리응회암		
유문암		
안산암질암류		
---- 관입 및 분출 ----		
이천리층		

2. 부산지역에서 보고된 주요 자연사 기록

부산 일대에는 경상누층군의 상부 지층에 해당하는 중생대 백악기말의 유천층군 퇴적층이 분포한다. 최근 들어 부산의 태종대 지역에서 공룡발자국과 다대포 지역에서 공룡알화석 등이 새로이 발견된 바가 있어 부산지역은 백악기말 한반도 자연환경의 이해를 돕는 귀중한 자연사 기록들의 산출이 예상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산의 유천층군 퇴적층에서 보고된 주요 자연사 기록들의 산출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산 다대포-두송반도 일대의 다대포층>

(1) 켈크리트복합층

호소퇴적층이 부분적으로 발달된 충적평야 퇴적층인 다대포층에서는 두께 15m에 달하는 켈크리트복합층이 산출되었다. 이 복합층 내의 켈크리트층은 대체로 단괴상-미크라이트질 괴상, 단괴상-이회질 괴상, 엽층상, 단괴상, 이회질 괴상 켈크리트로 구분된다. 이들 켈크리트층에서는 토양기원임을 지시하는 환상 및 굴곡상 균열구조, 엘비올라구조, 맞물림 경계를 갖는 펠로이드, 실뿌리기원의 관형의 공극구조, 티피구조 등이 관찰된다. 이러한 켈크리트 복합층은 건조한 기후조건이 유지되는 가운데 습윤한 기후가 반복되어 발달한 것으로 충적평야의 저지대 내지 호소연변부 환경에서 호수의 확장과 축소의 반복에 따라 퇴적 및 토양화 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2) 공룡알화석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두송반도 해안 절벽에서 떨어진 전석들에서 공룡알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경상누층군 유천층군의 하부층인 다대포층에 해당하며 충적선상지에서 충적평원에 이르는 환경의 퇴적층이다. 공룡알은 붉은색을 띠는 세립사암 또는 사질 이암으로 이루어진 범람원 기원 퇴적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알화석층에는 켈크리트 단괴들이 흔히 수반되어 있다. 공룡알은 등지상태의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암석에서는 알껍데기 파편들이 산재되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공룡알의 크기는 직경 80mm에서 110mm정도이며, 공룡알의 형태는 수직단면상 반구형 형태로 나타난다. 알껍데기의 두께는 1.0mm에서 1.3mm정도이다.

<부산 황령산지역 유천층군 퇴적층>

(1) 증발잔류광물기원의 건설구조

부산 황령산지역 유천층군 퇴적층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암상인 엽층 내지 얇

은 층이 발달한 사암과 이암의 호층암상의 이질의 퇴적물에 독특한 모양의 건열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표면에서 관찰되는 건열구조의 형태는 대체로 불완전한 형태로서 대부분이 렌즈상으로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일부는 약간 곡선형을 보이며 마름모꼴이나 양추형이 관찰된다. 또한 드물게 양끝이 갈라진 제비꼬리 모양의 석고결정형과 이것이 약간 변형된 모양도 관찰된다. 때때로 사질로 채워진 정사각형의 소금결정의 캐스트도 관찰된다. 단면에서 건열구조는 대부분이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이며 옆으로 볼록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고립된 형태가 간혹 마름모꼴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독특한 모양의 건열구조는 호수 가장자리 이질대 환경에서 건조한 기후하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점차 호수의 염도가 높아져 석고결정이 퇴적층 내에서 성장하거나 퇴적층 표면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건기로 퇴적층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석고결정을 핵으로 건열이 일어나서 형성된 것이다.

(2) 생흔화석

부산 황령산지역의 유천층군 퇴적층에서 생흔화석은 쳐트질의 얇은 층 내지 두꺼운 층으로 발달한 점이적인 사암층에서 흔히 발견된다. 쳐트질의 점이적인 사암층의 내부에는 탈수구조, 수평층리나 사엽층리가 발달되어 있고 파랑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칭적인 연흔구조가 관찰되기도 한다. 생흔화석은 이러한 사암층의 최상부에 발달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직적인 형태로 크기도 작고 무리지어 나타나는 *Skolithos* 이다. 또한 크기도 비교적 크며 수직적인 형태로써 무리지어 나타나지 않고 고립되어 나타나는 *Tigillite*와 수평적이고 기울어진 형태의 *Planolites* 와 덮개(spreite)가 있는 *Diplocraterion*이 나타난다.

생흔화석이 산출되는 암상은 전반적으로 응회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암상이 화산활동이 있었던 습윤한 기후의 담수호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3. 부산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지구 자체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환경의 기반이 되고 생명체의 서식처인 지형, 지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수재 외, 2003). 이러한 연구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안전하고 완전한 지질유산을 향유하고 이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자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질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지형, 지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존대상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정하여 이를 유지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가운데 지형 및 지질에서 지구역사의 주요변화단계를 대표하는 걸출한 사례장소를 판별기준으로 보고 여기에는 생명의 기록(화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적 과정으로 생긴 지형, 중요한 지형적 혹은 지문적 형태가 포함된다. 최근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도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과 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기념물 중에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 지형, 지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경승지 중에서 지형, 지질, 동식물상, 경관 등의 관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형, 지질 분야의 천연기념물은 2003년 11월 기준으로 총 38개인데, 그 중 동물과 고생물이 각각 13개, 1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암석 및 광물은 4개를 차지한다. 이는 화석과 같은 자연사 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암석과 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현재 부산지역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들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부산 금정산 암괴류>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계곡 내

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금강암에서 금정산 최고봉인 고당봉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에 원마도가 매우 높은 화강암 거력이 밀집 분포하여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화강암 거력의 크기는 최대 2.5m×6m에 이르는 것도 있으나 보통 장경이 0.5m-6m인 것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다.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거력의 크기가 점점 굽어지는데 이는 근원지에서 멀어지면서 퇴적물의 입자가 작아지는 일반적인 하천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들 화강암의 암괴들은 일반적으로 산사면에서 발달하는 각이 진 암괴로 구성되는 테일러스와는 달리, 원마도가 좋은 둥근

또는 타원형의 암괴이다. 이들은 기계적 풍화작용에 의하여 파괴되고 부서진 암석의 조각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아래로 움직이는 암석포행 즉, 중력에 의해 비탈진 사면을 따라 암석 덩어리들이 암괴류의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암괴류는 풍화작용과 고기후 즉, 주빙하기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의 후보대상지이다.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 12

내용 : 구상이란 공처럼 둥근 구조로 조기에 정출된 부분이나 외부의 포획암편을 중심으로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이 서로 띠를 이루면서 만든 동심원상의 구조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주로 화강암이나 섬록암과 같은 완정질 암석에서 발달하는데 전포동의 반려암에서 구상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다. 구상체의 지름은 작게는 1cm이하에서 크게는 5-10cm인 것도 있다. 색깔은 암록회색 내지는 연한 회색이다. 부산 전포동의 구상 반려암은 암석의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만 아니라, 매우 희귀하고 특수한 암석으로서 지질학적 연구가치가 크므로 1980년에 천연기념물 제26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부산 태종대>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내용 : 부산 태종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로 구성된 대형 파식 해안절벽으로 수평층리가 잘 발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태종대 해안은 해식, 해식동, 파식대 등 해안침식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부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 10월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부산 오류도>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941

내용: 오류도는 안개가 끼는 날이나 밀물일 때 섬이 6개로 보였다가, 썰물이거나 맑은 날은 5개로 보인다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이 바위섬들은 육지 쪽에 가까운 것부터 우삭도,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우삭도는 밀물 때 솔섬과 방패섬이라는 2개의 섬으로 분리되다가 썰물 때 하나의 섬이 된다. 제일 큰 섬인 굴섬에는 해식동이 있다. 1972년 시도기념물 제22호(부산)로 지정되었고 2007년 10월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부산 물운대>

위치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산144

내용 : 물운대는 낙동강 하구의 가장 남쪽에서 바다와 맞닿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6세기까지는 몰운대라는 섬이 있었으나, 그 후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흙과 모래가 쌓여 다대포와 연결되어 육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일대는 지형상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개와 구름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몰운대(沒雲臺)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대포와 몰운대는 조선시대 국방의 요충지로서 임진왜란(1592) 때에는 격전이 벌어졌으며, 이순신의 선봉장이었던 충장공 정운도가 이 앞 바다에서 500여 척의 왜선을 맞아 힘껏 싸우다가 순국하는 등 역사의 한 장면이 연출된 곳이기도 하다. 정운의 순국을 기리기 위한 사당과 비석이 있는 이곳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경승지이다. 현재 시도기념물 제27호 (사하구)로 지정되어 있다.

4. 조사지역의 지질 및 자연사기록 산출특성

조사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으로, 현재 주택가로 활용되는 곳이다(그림 2). 조사대상지역의 북측에는 배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연제구쪽 배산에는 시도기념물 제 4호(연제구)로 지정되어 있는 배산성지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배산성은 언제 쌓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가 이 지방을 다스리기 전에 토착 세력집단이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은 산의 정상부를 둘러쌓은 테뫼식으로, 산 아래는 나사 모양으로 돌아 오르도록 지형에 따라 흩으로 쌓았다. 현재는 토성의 기초 부분만 남아 있으며, 성의 주변에서는 그릇조각과 기와 조각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림 1의 지질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지역은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 산지인 배산에는 안산암질암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조사대상지역의 굴착공사가 진행될 때 노출될 수 있는 기반암의 암종과 자연사 기록 산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지역의 인근 산지를 참고지역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3 및 그림 4에 조사지점과 위성영상이 나타나있다.



그림2. 조사대상지역의 야외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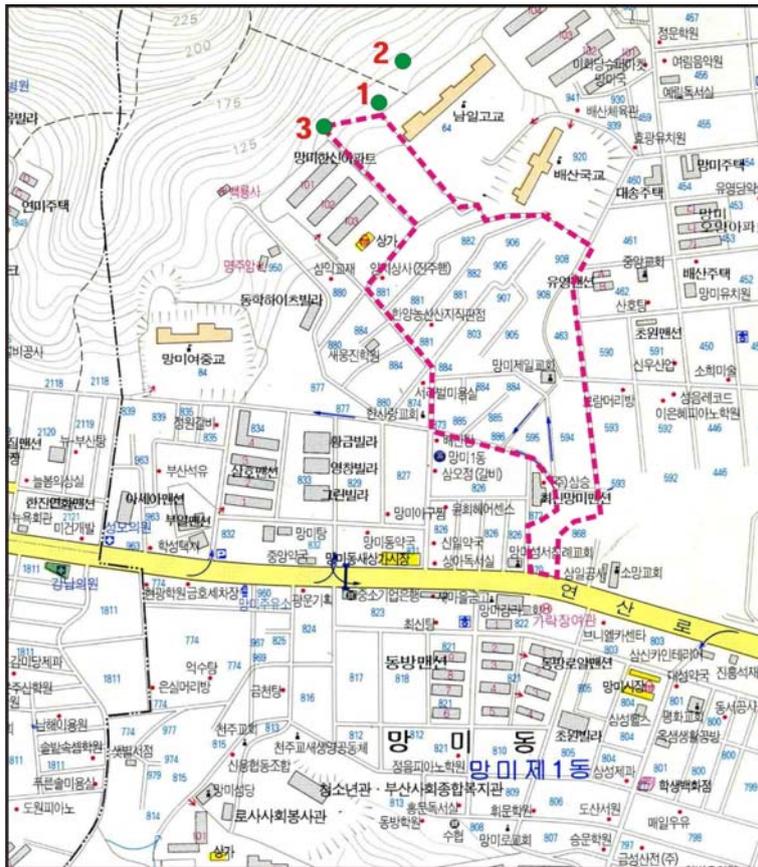


그림3. 조사대상지역 및 조사지점의 위치도



그림4. 조사대상지역의 위성영상

제 1지점(N35°10'39.0"/E129°06'02.7", 그림 5)

이 지점은 남일고등학교 뒤 등산로에 위치한 곳으로 소규모로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점의 기반암은 신선한 면에서 암녹색을 띠고, 유백색의 장석 반정이 타형 내지 반자형의 결정형을 보이면서 2mm 내외의 크기로 함유되어 있는 안산암이다. 이 지점의 주변 암괴들 가운데에서는 5cm 내외의 각력을 함유한 화산 각력질 응회암도 관찰되었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5. 제 1지점의 야외사진

제 2지점(N35°10'42.8"/E129°05'58.5", 그림 6)

이 지점은 제 1지점에서 등산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나타나는 곳으로 제 1지점에 비해 노출된 기반암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이 지점의 기반암은 신선한 면에서 암녹색을 띠고, 1-2mm 크기의 유백색의 장석 반정을 함유하고 있으며 반정들은 타형 내지 반자형의 결정형을 이룬다. 이 지점의 암석은 제 1지점과 동일한 암석인 안산암이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6. 제 2지점의 야외사진

제 3지점(N35°10'40.5"/E129°06'01.4", 그림 7)

이 지점은 망미한신아파트 뒤 등산로 바닥에 소규모로 기반암과 암괴들이 산출된 곳이다. 이 지점에서 산출된 암석은 제 1지점 및 2지점과 동일한 암석으로, 암녹색을 띠며 장식반정을 함유한 안산암이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7. 제 3지점의 야외사진

<참고문헌>

- 김인수, 1988, 부산지역 백악기 다대포층에 대한 고지자기학적 연구: 그의 층서적, 지구조적 의의. 지질학회지, 24, 211-233.
- 김진섭, 윤성효, 1993, 부산 일원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류의 암석학적 연구. 암석학회지, 2, 156-166.
- 백인성, 김현주, 김정률, 진수임, 1996, 부산 황령산 지역에 발달된 백악기 호수퇴적층(유천층군)의 고환경. 고생물학회지, 12, 181-202.
- 백인성, 이준동, 김인수, 김정진, 박종욱, 1997, 부산 두송반도의 다대포층에 발달된 켈크리트복합층: 성인, 고환경 및 층서적 의미. 자원환경지질, 30, 263-275.
- 손치무, 이상만, 김영기, 김상욱, 김형식, 1978, 한국지질도 1:50,000 동래-월내도폭. 자원개발연구소, 27P.
- 신종주, 1997, 부산 다대포분지의 형성 및 구조 진화사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학석사 학위논문, 101p.
- 엄상호, 최현일, 손진담, 오재호, 곽영훈, 신성천, 윤현수, 1983, 경상분지의 경상누층군에 대한 지질 및 지화학적 연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보고 36, 124 p.
- 이광춘, 보존 가치있는 지질, 지형 목록표. 151p.
- 이수재, 이영준, 김지영, 이정현, 2003,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 KEI/2003/RE-21 연구보고서. 161p.
- 이유대, 1975, 부산 다대포층의 층서 및 퇴적. 부산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편) 제 20집, 91-104.
- 장태우, 강필중, 박석환, 황상구, 이동우, 1983, 한국지질도 부산-가덕도폭 (1:50,000) 및 설명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Chang, K. H., 1975, Cretaceous stratigraphy of southeast Korea.. Jour. Geol. Soc. Korea, 11, 1-23.
- Koto, B., 1903,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 Jour. Coll. Sci. Imp. Univ. Tokyo, 19-1, 1-61.
- Tateiwa, I., 1929, Kyeongju, Yeongcheon, Taegu, and Waegwan sheets. Geol. Atlas, Chosen, 10, Geol. Survey, Chosen. 24p.